



大稜

발행인 : 강창희(44회)
편집인 : 김순식(51회)
편집·제작 : 총동창회 사무국
발행처 :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대전고 동창회관 2층)
TEL.(042)257-0005 FAX(042)257-0518
홈페이지 : www.daego.kr
E-mail : obdk@daego.kr

大田高等學校總同窓會報

보문산 단풍 산행에 고교추억을 물들이며...

10월 26일(日) 오전 10시 대능가족등반대회, 보문산 야외음악당 집결

2014 대능가족등반대회가 오는 10월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대전 보문산에서 개최된다.

1999년 가을부터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가 매년 번갈아 개최하는 대능가족등반대회는 3만7천여 동문과 가족이 친목을 도모하고 대능인의 단결된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는 행사이다.

금년도 등반대회는 2012년과 마찬가지로 대전 보문산에서 열려 동문들에게 고교시절을 회상하며 추억에 잠길 기회를 주게 될 것이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까지 보문산 야외음악당에 집결하여 등록과 환담을

한 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10시 10분에 임시총회를 열어 9월 22일 총동창회 이사회 및 회장단·기별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이 제26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되었음을 보고하고 신임회장 취임식을 한 후 간단한 준비운동과 함께 산행을 시작한다.



사진을 지난 해 남산 등반대회 모습

등산은 두 코스로 나뉘어 진행된다. 1코스는 야외음악당에서 보문대를 거쳐 40분 정도 걸리는 보문산성을 오른 후 야외음악당 쪽으로 내려오고, 2코스는 1코스와 마찬가지로 야외음악당에서 보문대를 거쳐 보문산성을 오른 후 거기에서 15분 정도 걸리는 시루봉(보문산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야외음악당쪽으로 내려온다. 참가자들은 체력에 따라 두 코스 중 한 코스를 택하면 된다. 1코스는 1시간 30분, 2코스는 2시간 정도 소요된다.

등산을 마친 동문들은 모교로 가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한다. 점심식사는 오후 1시부터이니 등산을 하지 않는 동문들은 모교로 직접 와서 점심식사를 하면 된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모교 소운동장에 마련된 기별텐트에서 휴식을 취하다 오후 2시 30분부터 동문가족장기자랑, 명랑운동회, 행운권 추첨 등을 한 후 오후 4시 30분에 행사를 마칠 예정이다.

신임 총동창회장에 신현일(48회)



제26대 총동창회장에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이 선출됐다.

총동창회 부회장·이사 및 기별동창회 회장단은 9월 22일 저녁 6시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차기 총동창회장과 감사를 선출했다. 감사에는 임상순(48회) 변호사가 선임됐으며 홍종오(52회), 김종구(57회)

감사는 유임됐다.

총동창회장과 감사는 원래 정기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나 지난 5월 24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이날 이사회를 비롯한 총동창회·기별동창회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차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 것이다.

신현일 신임 회장은 엑손 선박유 한국총판 및 무역회사 CEO로 아시아태평양생태환경연합 이사장과 연세대 언론홍보 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을 맡아 대통령 표창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기도 했으며 현재 재경동창회장을 맡아 일대일 결연장학금 후원 및 모금에 앞장서는 등 모교와 재경동창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 신임 회장은 10월 26일 전 동문이 참가하는 대능가족등반대회 중에 여는 임시총회에서 선출을 추진 받고 회장에 취임하여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총동창회 임시총회 소집 공고

- ◇ 일시 : 2014년 10월 26일(일) 오전 10시 10분
- ◇ 장소 : 대전 보문산 야외음악당
- ◇ 참석대상 : 동문
- ◇ 안건: 신현일(48회) 제26대 총동창회장 선출 보고 및 회장 취임

권선택(53회) 대전시장



권선택 동문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후보로 출마해 대전광역시장에 당선됐다.

권 동문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대전시 기획관리실장, 내무부 지역경제심의관, 대전시 정무부시장·행정부시장,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후 대전 중구에서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현집(55회) 육군대장



김현집 동문이 육군 대장으로 승진하며 육군 제3야전군사령관에 취임했다.

김 동문은 육사 36기로 임관한 뒤 3사단 연대장,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차장·작전부장, 28사단장, 3군사령부 작전처장, 5군단장, 국방정보본부장,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을 역임한 자타가 공인하는 작전통이다.

권순일(56회) 대법관



권순일 동문이 대법관에 취임했다.

권 동문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2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사법연수원 14기)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했다.

정용기(60회) 국회의원



정용기 동문이 지난 7월 31일 치러진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정 동문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제16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상근 보좌역, 제17대 국회의원선거 한나라당 후보, 한나라당 대덕구지구당 위원장, 민선 4·5기 대덕구청장을 역임했다.

취급품목

- 일반소모품, 특수소모품
- 정형외과, 신경외과 Implants
- Spine 특수소모품
- 보조기 등
- 기타 모든 장비 일체

2014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 성료

재경에서 250여 명 등 총 1000여 명 참가

‘2014 정기총회 및 모교방문의 날’ 행사가 5월 24일(토) 오후 4시 모교 강당에서 동문 및 동문가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사진)

이날 행사는 ‘음악감상’, 1부 정기총회, 2부 만찬, 3부 행운권 추첨 순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열린던 동문가족 장기자랑은 올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음악감상 시간으로 바뀌 오후 4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동문들의 색소폰 연주와 판소리, 팝송 등으로 명곡감상의 시간을 가졌다.

음악감상에 이어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이인호(41회)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자랑스러운 대능인상’을 수상했다.

이 동문은 신한은행 창립부터 참여해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을 역임하며 업계 후발주자인 신한은행을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굴지의 금융그룹으로 키워냈다. 또한 본회의 자문위원과 재경동창회의 자문역, 부회장, 금융회장 등을 맡으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

이어진 시상에서 총동창회와 대능장학문화재단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송재준(44회), 표형식(53회) 동문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남몰래 오랫동안 불우이웃을 도운 이기상(62회) 동문이 표창패를 수상했다. 또한 총동창회와 기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원명(49회), 김용욱(56회), 이동혁(58회), 최우현(68회), 황주복(69회) 동문이 공로패를 수상했다.

안전심의 순서에서는 2013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 보고에 이어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선출할 예정이던 차기 회장은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가적인 애도 분위기로 후보를 찾지 못해 이사회에서 선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신임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현 집행부의 임기가 연장됐다.

5월의 화창한 주말에 모교를 방문해 동문 한마당잔치에 참석한 동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린다. 특히, 재경에서 버스 5대에 나눠 타거나 개인 승용차로 행사에 참가한 동문들과 행사 참가를 독려하느라 수고를 많이 한 기별 회장·총무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64, 65, 66회 동창회 대능지 발행비용 지원

이번 164호 대능지 광고는 64회 동창회(회장 최보성, 재경회장 권태형)와 65회 동창회(회장 김진억, 재경회장 김기영) 그리고 66회 동창회(회장 김재욱, 재경회장 채의상)에서 맡아 대능지 발행 및 발송에 드는 비용 대부분을 광고료로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 수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기별동창회에서 광고를 맡는 전통을 이어가는데 협조해 주신 64, 65, 66회 동창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능지 광고는 지난 142호부터 2~3개 기수가 연합해서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맡고 있습니다.

다음 165호 광고는 67, 68, 69회가 맡을 차례입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4년 정기총회 기별분담금 납부현황

2014. 9. 29. 현재 (단위 : 원)

기 수	납 부 액	비 고
44	1,200,000	
45	1,200,000	
46	1,200,000	
47	1,200,000	
48	1,200,000	
49	1,200,000	
50	1,200,000	
51	1,200,000	
52	1,200,000	
53	1,200,000	
54	1,200,000	
55	1,200,000	
56	1,200,000	
57	1,200,000	
58	1,200,000	
59	1,200,000	
60	1,200,000	
65	1,200,000	
69	1,200,000	
합계	22,800,000	

2014년 정기총회 협찬금 현황

2014. 9. 29. 현재 (단위 : 원)

* 현금

기 수	성 명	금 액	직 책	비 고
24	심 운 택	200,000	창성학원 이사장	
33	박 종 윤	1,000,000	(주)세창 회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35	이 동 호	300,000	금융소비자뉴스 회장	
37	김 종 두	300,000	前 교육공무원	
37	이 규 성	300,000	KORAMCO자산신탁(주) 회장	
38	김 정 배	150,000	前 서울시 공무원	
38	심 대 평	300,000	지방자치발전위원장	
38	이 동 호	100,000	前 교사	
38	조 봉 연	100,000	대전 조치과 원장	
41	김 각 영	500,000	김각영법률사무소 변호사	발전기금 지정기탁
44	이 종 훈	1,000,000	대덕약국 대표	발전기금 지정기탁
47	박 웅 범	500,000	중앙개발 대표이사	발전기금 지정기탁
48	이 기 재	1,000,000	(주)제이스통상 대표이사	발전기금 지정기탁
49	김 원 명	200,000	前 대전외고 교장	
51	김 순 식	1,000,000	한국기술사업화진흥협회장	발전기금 지정기탁
52	박 성 효	100,000	前 국회의원	
52	유 하 용	100,000	파랑새기획 대표	
52	이 명 수	300,000	충남 아산시 국회의원	
53	김 영 대	200,000	(주)팩컴코리아 국내사업본부 이사	
53	김 현 규	1,000,000	모교 교장	
53	표 형 식	1,000,000	행복한주주포럼 대표	발전기금 지정기탁
56	김 용 욱	1,000,000	대전도시환경산업 광산기업(주) 대표	발전기금 지정기탁
60	김 봉 배	100,000	(주)휴먼아트 대표	
62	이 기 상	100,000	서대전우체국 집배원	
63	김 경 남	300,000	정다운플라워 대표	
63	이 보 행	300,000	대현광고기획 대표	
70	정 창 용	150,000	해피정닷컴 대표	
재 경 동 창 회		1,000,000		
청 주 지 회		500,000		
대 동 모		1,000,000	대전고 동문의 동문을 위한 모임	발전기금 지정기탁
행복한주주포럼		10,000,000		발전기금 지정기탁
합 계		24,100,000		

* 물품

기 수	성 명	협 찬 물 품	상 당 액	비 고
50	장 윤 선	등심갈비식사권 4매	20만원	정육식당 <천년한우마을> 대표
53	임 용 철	한방소화제 200병	200만원	대전대학교 총장
55	박 근 태	소주 600병	70만원	(주)더맥키스컴퍼니 대표이사
56	강 형 규	황토그린 마사지케어크/비누 20세트	80만원	셀 공인중개사/창업컨설팅 대표
57	박 종 식	썬코디(천막 겸 텐트)	42만원	(주)에이원애드 대표이사
64	김 성 남	닥터정일봉 삼푸/리스 각12개	50만원	(주)보땅코스메틱 대표이사
64	박 종 열	홍삼진 골드/프리미엄 각10개	160만원	(주)대덕바이오 식품생활사업부 이사
77	조 원 휘	게임 풀업선 비데 1개	25만원	동서타일/디자인 대표
하나은행대흥동지점		기념타올 250장	100만원	
내 집 식 당		증약막걸리 2말	10만원	

* 화환

기 수	성 명	비 고
33	박 종 윤	대능장학문화재단 이사장
45	홍 승 원	대전충남세종병원회 회장
46	손 종 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47	박 웅 범	대전중학교총동창회 회장
53	김 현 규	대전고등학교 교장
66	이 종 민	(주)메디스타 이사
전 수 봉		대전시고교동문협의회 회장
전 중 현		충남기계공고총동문회 회장

총동창회 2014년 정기이사회 열려

총동창회 '2014년도 정기이사회'가 5월 20일 오후 6시 30분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회계연도 사업 및 결산 보고의 건과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했다.

또한, 지난 5년여 동안 모교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은 육종택 호주건설 대표(2008년 12월 20일 취득, 대능장학문화재단 발전에 기여), 이완구 국회의원(2009년 8월 27일 취득, 모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당시 충남도지사, 대전중 16회), 표형식 행복한주주포럼 대표(2013년 12월 17일 취득, 대능장학문화재단 발

전에 기여, 대전중 21회)에 대한 특별회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동창회칙 제2장 7조에 의거)

이사회 추천으로 특별회원으로 추대된 3명은 이번 총동창회 특별회원 추대로 앞으로 모교 및 총동창회 그리고 장학재단 발전에 더욱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용제 68회 총무 사무국에 프린터 기증

성용제(68회 총무, 삼성전자서비스 서대전센터) 동문이 총동창회 사무국에 삼성 칼라레이저프린터(CLP-360)를 기증했다.



총동창회 이사들이 안건심의에 열띤 토의를 벌이고 있다.

총동창회, 대흥동 경로잔치 후원

모교와 총동창회가 6월 28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교강당에서 열린 국악한마당 경로잔치를 후원했다.

이날 경로잔치는 대흥동자원봉사협회의 회가 대흥동 관내 7개 경로당 어르신 220여 분을 초청하여 연 행사로 협의회에서는 부침개, 떡, 잔치국수, 수육, 음료수 등 먹거리를 준비했으며 성심당에서 튀김소보루를 협찬해주었다.

모교는 강당, 수도, 전기 등 제반시설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협조해주었고 총동창회는 국악공연에 필요한 음향설비와 테이블, 의자 등 먹거리를 제외하고 잔치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동문 10명과 함께 후원했다.

총동창회와 함께 행사를 연 동문들은 평소 대흥동자원봉사협의회를 후원하는 동문들로 특히 변재훈(58회, 세이북스토어·타임문고·세이북스 대표) 동문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악공연단의 초청경비 일체를 따로 협찬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의 젊은 국악인(가야금, 해금, 피리, 경기민요, 판소리)으로 구성된 퓨전국악공연단은 1시간 가까이 이날 잔치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흥을 돋우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대전시민 특히 대흥동 거주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에 앞장설 계획이다.



오늘은 기쁜 날! 대흥동 7개 경로당 노인 220명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74·76회 동기회 창립 “조금 늦었지만 최고가 될 겁니다!”

제74회 동창회 창립총회가 지난 9월 27일 토요일 오후 5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홍성룡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74회 동문들은 동창회칙을 제정한 후 초대 회장에 황윤선, 감사에 박형수 동기를 선출하고 이승찬, 김문식 동기를 고문으로 추대했다.

황윤선 회장은 인사말에서 74회 동창회가 비록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몇 년 안에 대전고동창회 중 최고로 잘 모이고 최고로 잘 되는 동기회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자고 부탁하고 수석부회장에 서유덕, 총무에 홍성룡 동기를 임명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김순식(51회) 사무총장, 민장홍(56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74회 동창회의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제76회 동창회 창립총회가 지난 8월 22일 금요일 저녁 7시 동창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강석 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76회 동문들은 먼저 동창회칙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에 이도용, 감사에 허현구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도용 초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동창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부회장에 이강석, 총무에 여인준, 재무에 하정호 동기를 임명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김순식(51회) 사무총장, 민장홍(56회) 사무국장이 참석해 76회 동창회의 창립을 축하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74회와 76회 동창회의 창립을 축하한다.



제74회 동창회 창립총회 모습



제76회 동창회 창립총회 모습

동문 사칭 물품판매 잡지구독 현혹되지 마세요!

회원명부를 새로 발간한 요즘은 동문(동기)임을 사칭하며 물품(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을 판매하거나 월간지·주간지(시사저널 등) 구독을 요청하는 사기전화가 종종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3학년 때 몇 반이었던

아무개다 또는 몇 회 누구인데 아들 회사에서 만드는 차량용 블랙박스 또는 네비게이션 좀 사달라고 한답니다. 아니면 월간지나 주간지 구독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사기꾼이니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정중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증발되는 막대한 우편비용 바뀐 주소 수정해 주세요!

총동창회는 직장을 옮겼든지 이사를 했든지 휴대폰 번호를 바꿨을 경우 본인이 직접 총동창회 홈페이지(www.daego.kr)에서 정보를 수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고 졸업생은 총37,635명이다. 그 중 총동창회에서 연락처를 파악하고 있는 동문은 1만9천여 명이다. 총동창회는 연 3~4회 발행하는 동창회보 '대능'지를 동문들에게 개별 발송하고 있다. 그 중 10% 정도가 매년 반송된다. 우편료만 따져도 100만원이 넘는다.

우편물이 반송되는 동문들은 사무국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바뀐 주소를 알아내고 있다.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주소 수정을 하면 사무국에서 일일이 전화하는 수고를 덜



총동창회에서 발송하는 부수의 10% 가량이 바뀐 주소 때문에 매년 반송되는 실정이다.

수 있으니 아직 홈페이지에 회원가임을 하지 않은 동문은 가입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가입을 하면 가장 최근의 동문자료 등 각종 소식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동문은 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총동창회 사무국에 정보수정을 요청해도 된다.

금년 1對1 결연장학금

1억 9천여만원 학생들에 전달

2014년 일대일 결연장학금 전달식이 6월 12일 오후 4시40분 모교에서 동창회 임원과 재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재경동창회에서는 신현일(48회) 회장, 조석준(51회) 기획부회장, 조동인(56회) · 송인수(56회) 부회장 및 김용덕(56회) 사무처장이 참가했으며, 총동창회에서는 윤성렬(44회) 수석부회장, 김순식(51회) 사무총장, 민장홍(56회)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대능문화장학재단에서는 박종윤(33회) 이사장과 박웅범(47회) 상임이사가 참가했다.

올해는 목표로 삼았던 100구좌를 훨씬 능가하는 110.5구좌를 전달해 장학금 전달을 시작한 이래(12년) 가장 많은 구좌를 모금했다.

신현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후배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선배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모교가 발전하고 후배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다. 후배들은 선배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서 후회 없는 고교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규(53회) 모교 교장은 “부족함이 많은 후배들을 위해 묵묵히 지원해 주시는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일대일 결연장학금이 쓰러져가고 있는 모교의 마지막 생명줄이고 이 생명줄이 모교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밑바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결연장학증서는 기숙사 입사생 모두에게 전달되었으며 학생들은 결연식 후 선배들의 ‘배려와 나눔’을 잇기 위한 서약식을 가졌다.

신현일 회장, 교직원 초청 만찬

신현일(48회) 재경회장이 6월 12일 오후 6시 30분 대전 둔산동에 위치한 중식당 ‘미스터 왕’으로 김현규(53회)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100여명을 초청해 만찬을 열었다.

이날 만찬은 신 회장이 후배들 지도에 여념이 없는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만든 자리였다.

이날 만찬에는 금동화(48회) 재경 수석부회장과 이날 오후에 모교에서 있는 결연장학금 전달식에 참가했던 모든 분들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특히 6·4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된 권선택(53회) 동문이 인사차 방문해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對1 결연장학금 모금안내

△1구좌 170만원, 다수 구좌나 1/2구좌도 가능

△계좌번호 : 국민은행 754237-04-019198

재경대전고동창회

기 고

결연 大선배의 조언, 큰 힘이였다



나와 이상량 선배님과의 인연은 2011년 5월 일대일 장학결연식에서 시작되었다. 나는 당시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보다는 대선배님과 일대일 결연을 맺는다는 것이 신기하고 가슴 설레었다. 나와 결연을 맺는 분이 46회 이상량 선배님인 걸 알고서는 바로 이메일을 보냈다. 철부지 고등학교 1학년이 쓴 글에 선배님께서는 친절히 답장을 해주셨다. 나는 그게 얼마나 신이 났던지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다녔던 기억이 난다. 나는 학교에서 상을 받거나 큰일을 해냈을 때마다 선배님께 이메일을 보냈다. 그렇게 해서 1학년이 끝날 무렵 선배님께서 나를 보러 대전에 내려오셨다. 그제 선배님과의 첫 만남이었다.

그 후에도 나는 계속 연락을 드렸다. 학교생활은 어떤지 공부는 어떻게 되가는지 말씀드렸다. 고민이 생기면 조언도 구했다. 선배님의 조언은 힘든 학교생활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만남도 계속 가졌다. 선배님께서는 나를 위해 동기인 배휘식, 허성도 선배님과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를 만들어 그 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다. 나는 선배님들의 경험담과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들으며 내 삶의 지표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량 선배님과의 결연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나는 수능과 입시에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내가 뿌듯한 것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는 인연을 이어가려 노력한 점 그리고 내 노력에 너무도 친절히 응해주신 선배님이 계셨다는 점이다.

나는 꿈이 하나 있다. 삼십년 정도 지난 미래에 대전고에 갓 입학한 후배와 장학결연을 맺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기쁨을 즐기는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이상량 선배님이 나와 결연을 맺을 때 어떤 기분이셨고 어떤 뜻을 갖고 계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을 결연장학생 후배들에게 말하고 싶다. 일대일 장학결연은 단순한 장학금 수여가 아니다. 대전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배님들께서 그들이 세운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후배들을 격려하고자 만든 대전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그런 선배님들의 뜻을 외면하지마라. 지금이라도 당장 결연을 맺고 있는 선배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드려라. 그리고 자주 연락드리고 고민이 생길 때는 조언을 구해라. 선배님들은 언제나 친절히 가르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다. 왜냐하면 대전고라는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고 학생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리고 선배님들의 큰 뜻을 이어가라. 존경이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다.

정주현(서울대 체육교육과 1학년)

2014 결연장학금 기탁현황

- 12년 연속 기탁 동문
송자(34회), 김소일 · 김중구(38회), 서정선(39회), 윤호일(40회), 김각영(41회), 유창종(43회), 이상량(46회), 목이균(48회), 정영재(54회), 김성남(55회)
- 누계 6천만원 이상 기탁 동문
故 윤봉섭(31회), 김용각(36회), 권오상(49회)
- 누계 3천만원 이상 기탁 동문
송자(34회), 김각영(41회)
- 누계 2천만원 이상 기탁 동문
윤호일(40회), 송재준(44회), 신현일(48회)
김보균(51회), 송인식(57회), 이의범(61회)

기탁자	기수	구좌	금액(만원)	누계(만원)	기탁자	기수	구좌	금액(만원)	누계(만원)
김 용 우	31	2	340	510	이 상 현	49	1	170	1,680
성 백 전	31	1	170	1,630	박 철 근	50	1	170	850
송 자	34	2	340	3,930	이 긍 배	50	1	170	1,560
어 준 선	35	1	170	1,800	강 창 근	51	1	170	170
김 용 각	36	6	1,020	6,900	김 대 식	51	1	170	1,020
이 규 성	37	1	170	1,360	김 보 균	51	3	510	2,680
김 소 일	38	1	170	1,970	이 철 재	51	1	170	340
김 중 구	38	1	170	1,970	고 길 석	52	1	170	1,830
서 정 선	39	1	170	1,970	성 기 철	52	7	1,190	1,190
정 성 창	39	1	170	950	이 정 환	52	1	170	1,670
김 남 흥	40	1	170	1,800	류 성 렬	53	1	170	1,020
양 한 호	40	1	170	680	양 호 승	53	1	170	1,360
윤 호 일	40	1	170	2,440	이 권 훈	54	1	170	1,490
이 정 치	40	1	170	1,520	정 영 재	54	1	170	1,970
김 각 영	41	1	170	3,940	한 건 표	54	1	170	510
송 인 준	42	1	170	1,360	김 성 남	55	1	170	1,970
유 병 만	43	1	170	340	성 하 청	55	1	170	340
유 창 종	43	1	170	1,970	안 상 합	55	1	170	1,020
고 현 철	44	1	170	1,020	류 한 호	56	1	170	335
김 상 기	44	0.5	85	900	박 병 옥	56	0.5	85	170
류 명 열	44	0.5	85	900	송 인 수	56	1	170	340
성 필 호	44	1	170	1,190	오 탁 진	56	0.5	85	85
송 재 준	44	2	340	2,040	이 중 구	56	1	170	340
이 원 용	44	1	170	340	조 동 인	56	2	340	1,530
이 윤 호	45	1	170	510	허 정	56	1	170	510
강 형 빈	46	1	170	1,020	송 인 식	57	3	510	2,710
김 창 만	46	1	170	1,020	오 세 현	57	1	170	1,830
박 희 섭	46	1	170	1,630	김 경 수	58	1	170	1,830
이 상 량	46	1	170	1,970	박 천 서	58	1	170	1,020
오 세 빈	47	1	170	340	조 철 연	58	1	170	1,020
황 인 호	47	1	170	170	신 기 천	59	1	170	170
금 동 화	48	1	170	1,160	김 대 현	60	1	170	1,830
김 기 동	48	1	170	1,020	이 명 섭	60	1	170	510
목 이 균	48	1	170	1,970	최 기 남	60	1	170	170
신 현 일	48	4	680	2,040	변 재 상	61	1	170	340
유 병 학	48	3	510	510	이 의 범	61	5	850	2,200
이 선 복	48	1	170	340	이 동 인	62	1	170	340
정 만 우	48	1	170	1,190	박 승 만	63	1	170	170
조 남 용	48	1	170	1,010	정 활 재	64	1.5	255	255
권 오 상	49	6	1,020	6,070	계		110.5	18,785	105,775

2014년 제2차 임원·기별회장단 연석회의



재경동창회 임원·기별회장단 연석회의가 6월 20일 저녁 7시 충무로의 대림정에서 열렸다.(사진)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모든 공식 활동을 연기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31회 정호영, 조주찬 선배부터 82회 이지원 후배까지 약 4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6월 12일 모교 다목적실에서 있는 일대일 결연장학금 전달식에 역대 가장 많은 110.5구좌를 전달했고 전달식 후에는 신현일 회장이 모교 교직원 100여명을 초청해 만찬회를 가진 것 등 2014년 상반기 활동사항과 직전 3개월에

대한 수입·지출 회계감사 결과 적정의견을 받았음을 보고했다.

아울러 박인규 50회 신임 회장의 인사와 69회 동창회 발족 준비위원들의 인사, 테니스회와 기우회 등 동호인 모임 소개도 있었다.

또한 지난 2월 회의에서 약속한 대로 회원명부 대금 납부를 위해 애쓴 기수에게 포상을 했다.

기별분담금 및 임원회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502-189858
예금주 : 재경대전고동창회

강창희 총동창회장, 재경 원로 초청오찬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이 7월 10일 정오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중식당에 재경동창회 상임고문 등 원로들을 모시고 오찬을 하며 국회의장 임기 동안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는 자리를 가졌다.(사진)

이날 오찬에는 조완규(26회) 전 교육부장관, 김시중(30회) 전 과거처장관, 박준병(31회) 전 국회의원, 나웅배(32회) 전 부총리, 송자(34회) 전 교육부장관, 이동호(35회) 전 내무부장관, 김종구(38회) 전 법무부장관, 심대평(38회) 지방자치발전위원장, 김각영(41회) 전 검찰총장, 송인준(42회) 전 헌법재판관,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 등이 참석해 강창희 회장이 대과 없이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것을 축하하고 동창회 발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현일 재경회장은 1대1 결연장학금 모금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재경과능회 원로 오찬모임



재경과능회 원로 오찬모임이 6월 24일 낮 12시에 서울대 호암관에서 있었다.(사진) 이날 모임은 조완규(26회) 고문이 주선했으며 김시중(30회), 유동원(39회), 송재준·김전식(44회), 금동화(48회), 김희중(51회), 이규봉·성원규·서정천(53회), 오응진(58회) 회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과능회가 매년 여는 과학기술훈의 날 행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제32회 재경동창회장배 바둑대회



제32회 재경동창회장배 동문바둑대회가 6월 6일 오전 10시 한국기원 대국장에서 열려 35회 전장원 선배부터 76회 김지은 후배까지 150여 동문이 참가해 수담을 나누며 선후배의 정을 돈독히 했다.(사진)

이날 대회를 위해 강직수(51회) 회장과 임관순(60회) 총무 등 기우회 집행부가 준비를 철저히 했으며 재경동창회에서는 신현일(48회) 회장이 개·폐회식에 참석해 격려하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아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단체전 우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54회가 차지했고 준우승은 44회에 돌아갔다. 개인전에서는 A조 김광재(38회), B조 서지원(54회), C조 박재현(46회) 동문이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후원과 찬조를 해준 동문들 덕에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찬조 및 협찬해 주신 분〉

재경동창회: 100만원

오능회: 30만원

이동호(38회): 10만원

한준환(45회): 30만원

목이균(48회): 20만원

권오상(49회): 50만원

강직수(51회): 200만원

조동인(56회): 해커스 동영상 수강권 100만원 상당

이의범(61회): 손수건 100만원 상당

2014년 재경동창회장배 골프대회



재경동창회장배 골프대회가 9월 28일 경기도 캐슬과인 골프장에서 신현일(48회) 회장을 비롯 김종구(38회), 김각영(41회), 송인준(42회), 장영철(45회) 전 회장 등 1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이날 대회에서는 결연장학금 1구좌 170만원이 전달되기도 했다.

단체전 우승은 57회, 준우승은 48회와 56회가 차지했으며 최다참가기수상은 48회에서 가져갔다. 개인전 우승은 박종탁(65회), 준우승은 김윤희(69회), 메달리스트는 강석동(57회), 니어리스트는 김대현(60회), 롱기스트는 채의상(66회) 동문에게 돌아갔다.

〈현금 찬조〉

재경동창회: 100만원

김종구(38회): 30만원, 김각영(41회): 30만원

신현일(48회): 200만원, 이종철(48회): 100만원

황성연(51회): 100만원, 조동인(56회): 200만원

〈물품 협찬〉

장영철(45회): 당구 큐 2개, 이상량(46회): 전기주전자 4개, 목이균(48회): 건강음료즙 10박스, 류제민(48회): 커피세트 7박스, 김영태(51회): 명품 장류 5세트, 송철수(51회): 커피메이커1, 골프공 2타스, 황성연(51회): 건강양말 180세트, 박근태(55회): 소주 10박스, 조동인(56회): 해커스어학원 동영상 수강권 20매, 권인채(56회): 화장품 5세트, 정필경(56회): 제습기 1대, 길호철(56회): 백삼액1, 홍삼정5, 윤재경(58회): 쌍용자동차 매트 170개, 이의범(61회): 여성복·남성복, 김병곤(63회): 티셔츠 170매

오능회·육능회 춘천 합동산행



오능회와 육능회가 회원 단합 및 선후배간 친목 도모를 위해 6월 21일 토요일 춘천 강촌 문배마을로 합동산행을 다녀왔다.(사진)

이날 산행에 참석한 60여명은 버스 2대에 나눠 타고 즐거운 마음으로 사당역을 출발, 10시 50분경 문배마을 산 아래 구곡폭포 주차장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이철재(51회) 오능회장과 남궁은(61회) 육능회장의 인사말을 듣고 등산을 시작해 1시간 가량 지나 해발 약200m에 위치한 문배마을 통나무집에 이르러 잠시 땀을 식힌 후 미리 예약해둔 오리·닭백숙과 직접 만든 손두부 및 도토리묵 그리고 산나물을 곁들여 막걸리를 마시며 답소를 나누는 후 선후배 친선 족구 경기를 하고 힘찬 교가제창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찬조 및 협찬해 주신 분〉

신현일(48회) 재경동창회장: 100만원

재경동창회: 수건 60매

박철근(50회): 10만원

송서영(56회): 20만원

최기록(62회): 30만원

강세봉(66회): 10만원

이원오(46회): 해커스어학원 동영상 수강권(40만원)

김진철(58회): 닥터에그 비비크림 2개

김부수(62회): 일동제약 사은품세트

이광우(63회): 캔음료(30개들이) 2박스

대전고총동문합창단 첫선 보인다

지난 9월 전국 고교동문 합창제 참가 무대에서 데뷔

44회 아버지합창단이 모태... 93회까지 53명으로 구성



대전고총동문합창단이 9월 13일 서울 KBS홀에서 열린 2014 대한민국 고교동문 합창제에 참가해 전국의 8개 학교 중 첫 번째로 나서 '연가'와 '아침 이슬'을 불러 청중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2009년 5월경 지인의 딸 혼사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친 친구들(20여명)이 '즐거운 나의 집'을 부르는데 몽클한 감정을 억제하느라 힘들었다. 복장도 통일 안되고 솜씨도 그저 그렇지만 하객으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의 명문 K고교 동기동창들이었다.

며칠 후 44회 동기동창 모임에서 이런 일을 얘기하며 우리도 합창단을 구성해 자녀 혼사에 축하를 부르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동기들 다수가 동조하면서 여러 차례의 모임과 회의를 거쳐 그해 12월초 '대전고 44회 아버지합창단'이 만들어졌다.

44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이듬해 첫선을 보였다. 틈나는 대로 연습하며 입을 맞춘 곡은 '동무 생각'과 '희망의 나라로'. 모두 다 빨간 보타이에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 양복을 입고 당시 지휘자였던 정준화 딸 결혼식장에 나타났다. 혼주가 직접 지휘하는 진풍경 속에 이날 식장을 힘차게 울린 합창은 하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와 탄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후 합창단은 10여 차례 동기동창 혼사에 초대되어 축하를 불렀으며 전문적인 지휘자 영입(2010년 양재혁 교수)과 지속적이고 피땀 어린 연습으로 그럴듯한 합창단으로 모습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44회 아버지합창단은 발족 3년이란 세월을 거치며 동기동창 혼사, KBS 남자의 자격 '전국합창경연대회', 스승의 날 행사, 송년 모임 등 무대에 선 것만 해도 50여 차례. 특히 지난해 4월 서울에서 개최된 대전고 44회 아버지합창단 제1회 음악회는 4백여 명의 관객 앞에서 펼쳐지며 대성황을 이뤘다.

해를 거듭하며 외부에 알려지게 된 아버지합창단은 지

난해 말 부산고동문합창단장의 대한민국 고교동문 합창제에 동참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전환기를 맞게 된다. 우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 대전고총동문합창단으로서의 대표성 문제. 총동창회로부터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합창단은 재경동창회와 기별동창회의 협조 아래 단위 영입에 나섰다. 아버지합창단원 33명과 93회까지 후배 20명을 아우른 총53명의 '대전고총동문합창단'이 이렇게 탄생했다.

단원 중 29명은 지난 7월 26일 전국 13개교 합창단이 참가한 제6회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 평화음악회에 초대받아 예술의 전당 무대를 밟기도 했다.

9월 13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고교동문 합창제는 대전고총동문합창단 탄생의 화룡정점 무대였

다. 이 대회에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참가고교 7개 팀과 대등한 실력을 뽐낸 것이다. 선보인 곡은 '연가'와 '아침 이슬'. 데뷔무대치곤 아쉬움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단원들은 관객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 속에 진한 전율을 느꼈다.

이어 이날 참가한 330명이 함께 부른 노래 또한 관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공연 후 참가학교 단장 모두가 대전고총동문합창단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한다며 우리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古稀를 코앞에 둔 단원들이 후배들을 영입했다하나 별 볼일 있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2014년 9월 13일은 대전고총동문합창단이 기라성 같은 명문고교 합창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과시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확신한다.

양재혁 교수 안성지 반주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버지합창단을 위해 헌신적인 역할을 했던 성대용 전 총무 그리고 강영인, 김대환 총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합창단'에서 '대전고총동문합창단'을 탄생시킨데 조그마한 역할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창희 총동창회장, 신현일 재경회장, 노세래 재경 44회 회장을 비롯해 성필호 후원회장, 송재준 회장, 박성수 회장 등 후원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고총동문합창단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단장 박현영(44회)

추적으로 새기는 아버지합창단의 지난 4년



전문성 없이 오직 노래하고 싶은 심정으로 2009년 12월 탄생된 44회 아버지합창단.

양재혁 지휘자의 제안으로 참가한 KBS 남자의자격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1차 예선을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능지 155호 참조)



진정한 합창단으로의 면모를 제대로 드러냈던 아버지합창단 제1회 음악회.

2013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하나대투증권 3층 한마음홀에서 열린 이날 음악회에는 400여명의 관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뤘다. (대능지 160호 참조)

개교 100주년에 **당을 대전고의 발자취를 찾습니다.**
추억에 묻힌 우리들의 역사를 되살리는데 동참합시다!

2017년 개교 100주년을 맞는 대전고가 지난 역사를 찾습니다.
졸업앨범, 사진, 교과서, 교복, 모자 등 자료를 기증해 주십시오.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보내실 곳 : 대전시 중구 대흥로 121번길 8(대전고 동창회관 2층) 대전고등학교총동창회 ☎ 042-257-0005



권용두 애국지사 추모비 제막식 광경



지역 동생들을 가르치며 행복해하는 '단비' 회원들



위문공연을 하고 있는 소리나눔봉사단

권용두 애국지사 추모비 제막

항일 애국지사인 남곡 권용두(12회) 선생 추모비 제막식이 5월 24일 모교 교정에서 심대평(38회) 총동창회 고문, 김용재(41회) 추모사업추진위원장, 김현규(53회) 모교교장, 권선택(53회) 전 국회의원, 엄홍철 대전시장,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사진)

권 애국지사는 제일보통학교(현 삼성초) 재학 중 6·10만세운동에 참가하고 대전중(현 대전고) 재학 시에는 한국인 학생조직인 선우회와 항일구국 목적의 비밀결사대인 충남전위동맹에 가입하여 일제식민통치를 규탄하고 농민야학을 개설하여 민족정신 고취 및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멸망과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재학생들 경진대회 대거 입상

재학생들이 각종 경진대회에서 대거 입상했다.

5월 31일 대전시교육청이 주최한 2014대전광역시수학과학올림피아드에서 수학부문에 최태원(3학년) 군이 은상, 지구과학부문에 정웅수(3학년) 군이 은상, 유동민(3학년)과 이창하(3학년) 군이 동상을 받았다.

정보통신분야 영재의 조기발굴을 통해 IT강국 기반을 확립하고 미래의 IT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6월 24일 열린 제25회 대전정보올림피아드 경시대회에서는 배승환(2학년) 군이 동상을 수상했다.

8월 6일 한밭대학교에서 개최된 제2회 전국고교생 디자인 실기대회에서는 김도훈(3학년) 군이 기초디자인 부문에서 금상인 한밭대총장상과 30만원 상당의 부상을 받았다.

해군 군악대, 나라사랑 음악회



해군 군악대의 '나라사랑 음악회'가 모교강당에서 열렸다. 이 음악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군 군악대 및 의장대 100여명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공연으로 모교에서는 7월 14일에 열렸다.(사진)

해군 군악대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연주로 강당을 가득메운 1~2학년생 900여 명으로 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방과 후 교육봉사 “참 좋아요”

모교가 지난 8월 18일 대전YWCA 대흥동청소년문화의 집과 대흥동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을 도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교육봉사활동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모교 재학생들은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흥동 지역의 초·중학생(현재 20여명)의 멘토가 되어 교육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교육봉사동아리 '단비'(회원 수 60여명) 회장인 3학년 이동원 군이 자신의 봉사활동 경험을 토대로 학교와 YWCA에 제안하면서 이뤄졌는데 협약 체결 후 이 군은 “그동안은 동아리 차원에서 계획 없이 봉사했었는데 이제는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생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름다운 소리로 기부합니다

소리나눔봉사단(지도교사 진영미, 단장 1학년 김창우)이 7월 9일 이안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했다.(사진)

소리나눔봉사단은 통기타를 배우는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기타 연주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부 활동을 하는 등 건전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봉사단은 매주 수요일 YWCA를 통해 소개받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들과 일대일로 결연하여 기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대전YWCA 배려 대상 어린이를 위해 공연과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지도를 맡고 있는 진영미 선생님은 “학생들이 소리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갖게 돼 기쁘다”며 “덤으로 예술적 감수성을 일깨워 학생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있어 더 기쁘다”고 말했다.

끌어주는 선배, 큰 꿈 갖는 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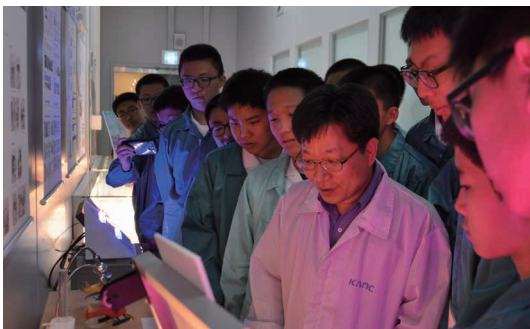
한모생활관 54명 서울대·국회·한국나노기술원 견학



“서울대를 목표로 세우세요.” 서울대 규장각 앞에서.



“국회의장보다 더 잘돼야 한다.”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최첨단 기술은 이런 것.” 한국나노기술원을 둘러보며.

한모생활관 1, 2학년생 54명이 이흥구(55회) 교감 등 교사 8명의 인솔 하에 5월 26일 서울대학교와 국회의사당 그리고 한국나노기술원을 견학했다.

이번 견학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와 입법기관인 국회의사당, 과학기술의 요람인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진학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견학단은 오전에 서울대에 도착해 이철호(58회) 건축학과, 유재준(59회) 물리학과 교수의 안내를 받아 규장각을 관람한 후 서울대 입학사정관의 도움으로 서울대 입학전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재경동창회와 서울대 재직동문회에서 마련한 환영 오찬에 참석했다.

이날 오찬에는 신현일(48회) 재경회장, 김용덕(56회) 사무처장, 고현무(49회) 서울대 재직 동문회장과 많은 재직 동문교수들이 참석했다.

신 회장은 환영사에서 “후배들이 서울대 진학을 위해 노력한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회장은 “서울대에 입학하는 후배가 점점 줄고 있어 안타깝다”며 “어느 대학에서든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견학단은 다음 일정으로 강창희(44회) 총동창회장이 국회의장으로 있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했다. 강 회장은 후배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국회의장보다 더 잘되어야 한다”, “큰 꿈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학생들은 이후 경기 관교에 있는 한국나노기술원(원장 김희중, 51회)을 방문해 나노기술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흥구 교감은 이번 견학에 도움을 준 선배들에게 “후배들을 위해 도움 줘 감사드린다”며 “후배들이 명문대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진학 지도를 잘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영 & 경제동아리 ‘유레카’ 2014글로벌청소년엑스포 참가



모교 경제&경영 동아리 유레카(ureca)가 EBS가 주최하고 유테카가 주관한 국내 최대 청소년활동 전시 대축제 2014 글로벌 청소년 토크콘서트 & 활동엑스포에 참가했다. (사진)

국내외에서 수천 개의 학생동아리가 신청한 이번 엑스포에는 심사를 거쳐 엄선된 160여개 동아리와 NGO가 참여했다. 유레카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 참가이다.

유레카(ureca)는 ‘our economy class’를 줄인 말로 경제에 관심 있는 학생만 경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즐겁게 경제 공부를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읽기 보다는 뛰면서, 쓰기보다는 말하는 경제공부’를 모토로 경제자료 찾기 · 발표 · 토론, 경제신문 제작, 모의투자, 선배 CEO 만나기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다.

야구 안익훈 LG, 이재관 SK 지명

2015 프로야구 신인 2차 지명회의(드래프트)가 8월 25일 오후 2시 르네상스서울호텔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열려 총103명이 프로구단에 지명된 가운데 모교에서는 2명이 지명됐다.

먼저 안익훈(3학년) 외야수가 1라운드 7순위로 LG트윈스에 지명됐고, 이재관(3학년) 투수는 7라운드 67순위로 SK와이브스에 지명됐다.

안익훈은 올해 3개 대회에 참가해 12경기에 출장, 타율 0.364, 장타율 0.500을 올린 유망주이다. 안 선수는 지난 9월초 태국에서 열린 제10회 아시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고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해 ‘대회 베스트 나인’에 뽑히며 최우수 외야수상을 받았다.

이재관은 부상으로 인해 올 시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193cm, 95kg의 좋은 체격으로 볼의 각도가 좋고 유연한 투구 폼을 지니고 있어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평이다.

기 고

고생 함께한 친구들과 느낀 명문 대전고



8월 9일 오전 6시 우리 경제 · 경영동아리 유레카 회원들이 대전북합터미널에 모였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4 글로벌 청소년 토크콘서트 & 활동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EBS에서 주최하고 유테카(7만 청소년 회원, 900여 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특별활동 소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 우리 동아리는 작년부터 부스를 운영했다.

작년에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부스를 운영했고 올해는 우리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인 모의투자를 바탕으로 게임을 만들어 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행사 당일 새벽까지 게임을 몇 번이나 수정했다. 행사장에 도착해서 부스를 꾸밀 때까지도 “이걸 과연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할까”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막상 행사가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든 게임을 즐기고 갔다.

우리는 이번 행사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다. 첫째, 협동이였다. 우리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준비를 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모여서 준비를 했고 행사 전날에는 동아리원 모두 밤을 새웠다. 부스 운영도 ‘내 일 남 일’ 가리지 않고 서로 도와 원활하게 부스를 운영할 수 있었다. 둘째, 자신감과 고마움이다. 실제 준비에서 완성까지 2주도 채 걸리지 않은 우리 게임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갔다. 4월부터 구상은 했지만 당일 새벽 4시에야 최종 완성해 오류 테스트도 해보지 못한 게임이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가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 게임을 재미있다고 좋아해주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셋째, 학교에 대한 자긍심이다. 우리 부스를 찾은 사람들은 우리가 학교 소개를 하기 전에 먼저 “아하! 대전고등학교, 훌륭한 학교, 명문학교에 다니는군요”라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뿌듯해지고 머리가 맑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와 선배님들의 명예에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부스 운영에 임했다.

이번 부스 운영으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부스 준비하고 운영하느라 고생한 우리 동아리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하고 싶다. 우리 대전고 파이팅!!! 경제 & 경영 동아리 유레카도 파이팅!!!

정민규(2학년)

기 고

히말라야의 유토피아 ‘샹그릴라’를 찾아서

오지탐험가 김영기(51회) 동문은 40대 중반에 IMF로 인해 회사에서 퇴출되어 실업자가 되었고 백혈병에 걸려 2년간 투병하며 거의 죽다가 살아났다. 그는 새롭게 시작한 제2인생을 즐겁게 살기 위해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여행을 다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욕심 없이 살아가는 오지인들의 생활에서 삶의 귀중함을 깨닫고 정화된 마음을 갖게 되었다.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에 등장하는 신비로운 지상낙원 샹그릴라를 찾아 히말라야를 누비는 그가 트레킹을 위한 히말라야의 베이스캠프(BC) 세 곳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나는 올 여름 샹그릴라를 찾아 NGO 지프차에 몸을 싣고 4000km를 탐험한 끝에 티벳 거네설산 속에서 ‘루좌촌’을 발견했다. 이곳 주민들은 처음 보는 외국인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다가 나의 말 한마디에 폭소를 터트렸다. 나는 준비해 간 볼펜과 티셔츠를 받아들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순진한 어린아이 눈에서 진정한 샹그릴라를 발견했다.

샹그릴라를 숨겨 놓은 히말라야에는 8000m 이상 봉우리가 14개 있다. 그 중 1~3위인 에베레스트, K2, 칸첸중가의 BC(베이스캠프)를 트레킹을 위해 소개한다.

◇ 칸첸중가(8586m)

히말라야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칸첸중가 북BC인 광파마에서 남BC인 옥탕까지는 5개의 패스를 넘는 험한 일정이지만 봄에는 नेपाल 국화 띠리구라스가 만발하여 산이 온통 붉게 물드는 것이 장관이다. 칸첸중가 옆에 있는 알룽강, 칸첸중가 중앙봉, 칸첸중가 남봉은 높이가 8000m 이상이지만 위성봉으로 판단되어 14좌에 올라서지 못했다.

◇ K2(8611m)

발토르 빙하를 따라 일주일을 올라가면 넓은 빙하 광장인 콩고르디아가 나온다. K2를 중심으로 브로드피크 · 카셔브럼1 · 카셔브럼2 BC를 각각 이곳 콩고르디아에서 출발한다. 세계의 패스 중 가장 험하다는 곤도고로 패스를 로프를 이용해 넘는다. 눈이 많이 오면 못 넘을 수도 있다. 이곳을 힘들게 넘어서면 금강초롱 평원이 펼쳐지는 무릉도원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낭가파르بات이 있는데 남쪽에는 멋진 직벽인 루팔벽이 북쪽에는 아름다운 페어리메도우 룯지가 자태를 뽐내고 있다.

◇ 에베레스트(8848m)

로체, 마칼루, 초오유, 시사광마를 좌우에 신하처럼 거느리고 있는 산의 제왕 에베

레스트를 바라보며 걷는 쿨부 트레킹은 남체에서부터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한다. 추궁에서 로체 BC, 마칼루BC를 갈수 있고 갈라파트라에서 에베레스트 일출을 본 후 출라 패스를 넘어 고교에서 초오유BC를 갈수 있다. 에베레스트 네팔BC는 로라산에 가려 정상 보이지 않지만 에베레스트 티벳BC는 시아가 탁 트여 에베레스트 정상이 잘 보인다. 시사광마BC는 티벳에 있다.

히말라야 트레킹을 하다보면 고산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고산병은 수목 한계선인 4000m

이상에서 산소 부족으로 머리가 아프고 숨이 차며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하고 말을 적게 하며 서서히 고도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특별한 약은 없으나 사람에 따라 이뇨제나 혈관확장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고산에서 마지막 한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정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국내에서 등산을 통해 몸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 사전에 방문지의 풍습, 문화, 종교, 언어 등 정보를 습득하고 그들의 음식과 열악한 환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삶을 통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힐링이 되어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할 수 있다면 눈앞에 해와 달의 무릉도원 즉 샹그릴라가 펼쳐질 것이다.

“대전고등학교 개교 100주년을 맞아 역사, 전통, 긍지를 한 곳에 모은 대고인의 깃발을 지구상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8848m에 꽂을 것을 기원합니다.”

김영기(51회, 오지탐험가)





손에 손잡고 49회 야유회

49회 동기들의 서울·대전 합동 야유회가 속리산국립공원 내 화양계곡에 위치한 충북자연학습원에서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됐다.

2년마다 정기모임으로 시행되는 이 행사는 재경과 대전 지역의 동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정례 모임으로서 올해는 53명의 동기 및 부인들이 참석한 고교 시절 수학여행 형식의 합동 야유회였다. 60을 넘긴 나이임에도 체육대회(발야구)에서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했고 부인들의 훌라후프 돌리기, 풍선 터뜨리기 시합 등 정겨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저녁식사 후에는 야외음악당에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장기자랑과 시 낭송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몇몇 동기들은 색소폰과 통소 연주를 하여 많은 박수를 받았고 캠프 파이어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촛불 릴레이를 하는 등 분위기 있는 별밤 시간을 모두 함께 만끽했다.

가을로 들어서는 시기, 청정지역(충북 괴산군 청천면)에서 올려다본 청천 하늘의 선명한 은하수처럼 이번 모임은 우리 친구들의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남을 것이다. 밤하늘의 별들, 캠프파이어, 불티, 촛불 릴레이 그리고 그림자...

이튿날 화양계곡과 가령산 산책을 마친 후 인근 송어횡집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한 49회 동기들은 2년 후 대전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며 각각 서울과 대전으로 출발했다.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했던 별밤 시간, 또 하나의 포근했던 추억으로 간직하고...

유정호(49회 재경총무)



56회 대전·재경 합동가족등반대회

56회 대전·재경 합동가족등반대회가 6월 22일 일요일 56회 동기와 가족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북한산에서 열렸다.

전국에서 모인 오륙인들은 북한산성 입구를 출발하여 원효봉을 다녀오는 코스에서 웅장한 북한산의 자태를 감상하며 건강도 다지고 동기들과의 우정도 돈독하게 하는 등 시종일관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제1회 70회 대전·재경 통합동창회

70회 대전·서울·경기 지역 동기 28명이 6월 21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늘티'식당에 모여 족구와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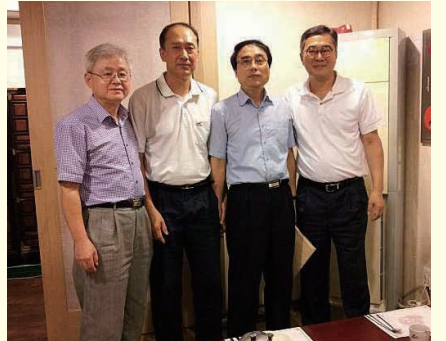
이번이 제1회 대전·재경 통합동창회이며 앞으로 매년 6월 대전과 서울을 번갈아가며 통합행사를 갖기로 했다.

통합동창회 개최로 70회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미 답

54회에 시원하게 쏟아진 아이스 버킷 루게릭병 앓는 동기부인 위해 1천여만원 모금

최근 루게릭병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아이스 버킷 챌린지 운동이 퍼지고 있다. 54회 동기들 간에도 박일배 동기의 부인(루게릭 환자) 돕기 사랑의 기부운동이 불길처럼 번져 동기 163명이 1,238만원을 모금해 전달했다.



전영화 총무가 박일배 동기에게 모금액 전달 왼쪽부터 김상현, 전영화, 박일배, 노성우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제 집사람을 돕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용기를 북돋아 준 친구들에게 하염없는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4년이 넘는 투병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됐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집사람을 생각하면 간병을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뜨거운 정을 주는 친구가 많이 있다는데 대고 54회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준 따뜻한 정과 응원으로 집사람도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이끌어주신 남진웅 54회 재경회장님과 전영화 총무님, 후원을 아끼지 않은 친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태내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일배(54회)

젊은 대고 금산 '늘티'서 야유회



젊은 대고(회장 65회 김진익, 총무 67회 고영호, 재정총무 68회 성용제)가 9월 24일 오전 10시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늘티'식당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야유회에는 이수행 전 60회 회장부터 이도용 76회 회장까지 40여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은 기수별 족구 경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마술사인 이도용 회원은 마술 시범을 보인 후 회원들에게 몇 가지 간단한 마술을 가르쳐줘 회원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 총동창회에서 민장홍(56회) 사무국장이 방문해 총동창회 격려금을 전달하고 젊은 대고의 발전을 기원했으며 이재운(53회) 동문의 부인인 김인식 대전시의회의장도 행사장에 들러 축하해주었다.

63회 졸업30주년 기념행사 개최 10월 25일 오후 5시부터 대전 선샤인호텔 컨벤션홀

63회가 10월 25일(토) 오후 5시부터 대전시 동구 용전동 대전북합터미널 맞은 편 선샤인호텔 컨벤션홀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63회 동기 및 가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은사님은 물론 총동창회장, 재경동창회장, 모교 교장, 선후배 등을 초청해 조용하면서도 의미 있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다.

63회는 이날 공식행사에서 은사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이어 모교에 장학금을, 총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는 기금을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73회 후배들에게는 동창회 결성 지원금도 마련해준다.

만찬에 이어 동기와 동기 가족들이 참여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마련해 즐거운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박희운 63회 졸업 30주년 추진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동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30주년 행사가 63회 동기간에 우정을 쌓는 행사인 동시에 물론 모교에 대한 사랑과 선후배에 존경의 마음을 다시금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영(52회) 동문 한밭대 총장 취임



송하영 동문이 국립 한밭대 총장에 취임했다.

송 동문은 지난 4월 11일 실시된 한밭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었다.

송 동문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했으며 충남대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6년 한밭대 건축공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연구산학협력처장, 기획연구처장, 기획협력처장, 초대 공과대학장, 도시건축재생기술연구소장 등을 지냈으며 행복도시건설추진위 자문위원, 대전시 건설기술심의위원, 대전시 규제개혁위 공동위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송 신임 총장은 “교육이 일자리로 이어지는 취업 일체형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하고 연구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연구 환경을 대폭 개선”해 한밭대를 “산학일체 교육의 세계일류 대학”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여표(53회) 동문 충북대 총장 취임



윤여표 동문이 국립 충북대학교 총장에 취임했다. 윤 동문은 지난 6월 18일 치러진 선거에서 1순위 총장 후보자로 선출됐었다.

윤 동문은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6년 3월 충북대 약학과 교수로 부임한 뒤 2000년 약학대 학장을 지냈으며 약품자원개발연구소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꿈을 이루는 창의공동체 충북대를 이루기 위해 귀를 열고 마음으로 듣겠다”며 “충북대를 아시아 100위, 국내 10위권 내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상직(53회) 동문 우송정보대학 총장 취임



정상직 동문이 우송정보대학 총장에 취임했다.

정 동문은 성균관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교법인 우송학원 기획실장을 거쳐 우송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우송공업대학·솔브리지국제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다.

정 신임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창의적 실용교육”을 충실히 해 “전문성과 함께 국제적 감각,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명품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권혁승(55회) 동문 외환카드 사장 취임



권혁승 동문이 전업카드사인 외환카드의 첫 사장에 취임했다.

권 동문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1984년 외환은행에 입행한 후 외환카드에서 상품개발부장, 서울채권지역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하고 카드본부장으로 밀리언셀러 상품인 2X카드를 성공시키는 등 외환은행에서 카드 업무를 전담해왔다.

외환카드는 외환은행 신용카드 사업부문에서 독립 분사해 9월 1일 하나금융지주의 100% 자회사 형태로 공식 출범했다.

권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외환카드는 열정, 열린 마음, 고객우선, 전문성, 존중과 배려의 그룹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의 비전을 달성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일(55회) 동문 대전발전연구원장 취임



유재일 동문이 대전발전연구원장에 취임했다.

유 동문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92년부터 대전대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유 동문은 그동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충청정치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한국정당학회 회장, 국회도서관장, 아태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유 신임원장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세계 일류의 지방정부 연구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대전은 물론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연구기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용현(58회) 동문 여성가족부 차관 취임



권용현 동문이 여성가족부 차관에 취임했다.

권 동문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32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충청북도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1998년 신설된 여성특별위원회, 2001년 출범한 여성부를 거쳐 현 여성가족부에 이르기까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여성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여러 보직을 두루 거쳤다. 여성가족부 총무과장, 대외협력관, 권익증진

국장 등을 역임했고 2008년~2010년 보건복지가족부 시절에도 가족정책관과 보건산업정책국장 등을 맡아 여성, 가족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를 놓지 않았다. 2010년 여성가족부로 돌아와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청소년가족정책실장으로 근무했다.

권 신임 차관은 성격이 원만하고 정책조율 능력도 뛰어나 동료와 부하 직원들의 신망이 두텁다.

정길영(59회) 동문 감사원 제1사무차장 취임



정길영 동문이 감사원 제1사무차장에 취임했다. 제1사무차장은 재정·경제 및 산업·금융, 공공기관의 감사를 총괄하는 감사원의 선임 실장이다.

정 신임 1차장은 서울대 불문과를 나와 행정고시 28회로 감사원에 들어가 재경·경제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고 제2사무차장으로 근무했다.

이명종(59회) 동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취임



이명종 동문이 한국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장에 취임했다.

이 동문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한 이후 국제국, 금융시장국, 경제통계국, 인사경영국, 금융통화위원회실 및 공보실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쳤으며 뛰어난 직무수행 역량과 합리적이고 온화한 성품을 겸비하고 있어 직장 내 상하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임 본부장은 1997년 미국 오레곤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구현(60회) 동문 서울시의회 의원 당선



김구현 동문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성북구 제3선거구(돈암1동, 종암동, 길음동, 월곡동)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의회 의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을 역임한 후 서울대 사회과학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개교 97주년 대전고 다시 뭉치는 대능인

책

그녀와 눈이 맞으면 관심을 갖고 읽었다.
내 방에 들여놓고 자리를 정해주면 다시 찾지 않지만
다른 대상이 손에 들려 들어와도 역할이 끝나면 마참가지였다.

수도 없이 그러다가 자리가 모자라면
맨바닥부터 쌓아놓기도 하고 꼭대기에도 올려놓았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다시 찾아주길 기다리면서
나의 성인을 입은 공녀처럼 목이 빠져졌다.

윤제철(49회)

한 번 보고 다시 보지 못하는 건
게으름이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핑계 때문이었고
찾아주진 않아도 버린 적이 없는 건
그녀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오래도록 간직하면서 산다는 즐거움에서였다.

그 중에 몇 번 더 찾아 사랑을 줄 수밖에 없는 몇몇은
직접 만든 것들이니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닌가 보다.
정리 못하고 수북이 쌓여 있는 그녀들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외출을 준비한다.



- ◆약력: (사)세계문인협회 부이사장,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회원, 한국문인협회 남북교류의원 역임, 한국현대시인협회 이사, 월간 문학세계·계간 시세계 상임편집위원, 사랑방시낭송회 상임시인
- ◆시집: 고향생각 한 잎, 꼭 끼는 삶의 껍질, 나를 앓힐 공간 하나, 지워지지 않는 흠집 등

기 고

‘국가동량 산실’로 재확인된 大田高



대능인(大稜人)들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최근 들어 동문들이 각계 리더로 자리잡으며 국가동량으로서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지방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것. 최근 대법관이 새로 탄생해 모두 3명으로 늘어났고, 대학총장과 4성 장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로부터 행정 각부 고위부서에 동문들이 대거 진입해 大高가 국가동량의 산실임을 재확인했다.

지난 반세기를 살펴보면 70년대까지는 20회-30회 초반 기수가 주로 활약했고, 80-90년대는 30회-40회기수가 각계에서 위명을 떨쳤다. 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 중반까지는 40회-50회기수가 절정의 활약을 했다. 2010년대 들어 50회기수로부터 60회기수가 두드러지게 핵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현재 50회대 기수는 최절정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연령으로 보아 입법, 사법, 행정기관과 기업, 그리고 각 분야에서 최상위직을 맡을 때인 건 분명하다.

50회가 만 60세, 59회와 60회도 50세를 넘겼기 때 문이다. 올 들어 50회 중후반 기수의 부상은 두드러진다. 먼저 사법부를 살펴보자. 지난해 안창호(54회) 동문이 헌법재판관에 임용되더니 올 9월 권순일(56회) 동문이 대법관에 취임했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신영철(51회), 이인복(53회) 동문 등 3명이나 된다.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 13명 중 3명이 대전고 출신이다. 과거에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이 여러 명 나왔지만 3명은 처음이다. 경사가 아닐 수 없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의 총장도 하반기 들어 3명이나 새로 탄생했다. 52회 송하영 동문이 국립 한밭대 총장에, 53회 윤여표 동문이 충북대 총장에, 53회 정상직 동문이 우송정보대 총장에 취임했다. 이로써 동문 대학총장은 모두 8명에 이른다. 기존 총장으로는 한승희(49회) 공주교대, 정상철(50회) 충남대, 이종서(52회) 관동대, 임용철(53회) 대전대, 구기현(58회) 상명대 총장 등이 있다. 서만철(54회) 공주대 총장은 교육감 출마로 사임했다.

정계(政界)의 꽃이라는 국회의원의 배출도 눈에 두드러져 전국구를 포함해 모두 8명이다. 19대 국회의원인 상반기 국회의장이었던 44회 강창희 총동창회장을 필두로 부의장을 맡았던 박병석(49회) 동문과 김태원(47회, 경기 고양 덕양을), 이명수(52회, 충남 아산), 이운룡(59회, 전국구), 정용기(60회, 대전 대덕), 이장우(63회, 대전 동구), 김용태(66회, 서울 양천을) 동문 등 8명. 이는 17명을 배출한 경기고와 9명씩을 배출한 경북고, 광주일고에 이은 전국 4위다.

입법·사법·행정 등 각계각층 고위직 대거 진출
사법부 최고위직 대법관 3명, 대학총장은 8명
국회의원 8명, 고위공무원단 38명으로 3위에
61회 이후 평준화동문후배 양성이 최대 과제

사법부와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에도 동문들이 많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핵심인 국정기획수석을 유민봉(55회) 동문이 계속 맡고 있다. 또 정황근(58회), 김재훈(59회), 한창훈(60회), 고득영(62회) 동문이 비서관 또는 행정관직을 맡고 있다. 이 밖에 행정부 차관급으로 여형구(56회) 국토교통부 차관, 권용현(58회) 여성가족부 차관, 구자현(58회) 조달청 차장, 교육부 산하의 박백범(55회)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이지한(55회) 대전시 부교육감, 전우홍(58회) 세종시 부교육감 등이 있다.

지역에는 권선택(53회) 대전시장을 비롯 송석두(58회) 충남부지사, 남궁영(60회) 충남기획관리실장이 있다. 행정부 고위공무원단(2013년말 기준)은 동문이 38명으로 44명의 경기고, 전주고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이기우(49회) 원장 등 연구기관에도 많다. 군(軍)에서는 오랜만에 4성 장군이 나왔다. 얼마 전 육군3군사령관에 임명된 김현집(55회) 동문인데 2성 장군인 이문석(56회), 이진원(58회) 등 사단장급 동문도 여럿 있다.

한편 90년대 중후반 ‘금융마피아 대전고’라 불릴 정도로 수많은 동문들이 은행장직에 있었으나 2000년대 초중반 신한은행장을 6년 연임하고 신한지주 사장을 맡았던 이인호(41회) 동문 이후 행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아쉬운 실정. 언론계 역시 90년대 중후반 전국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이 한번에 8-9명이 쏟아져 나와 ‘언론마피아’란 소릴 들었으나 요즘은 뜸해 아쉬움을 낳고 있다. 경찰고위직도 백승엽(60회, 치안감, 경남 경찰청장) 동문 외에는 별로 없다.

이상은 관계와 정계, 학계 위주의 인물이지만 정부 산하기관과 기업 고위직, 의료계에서 활약하는 동문들은 수천 명에 이른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지역보다 4-5년 늦게 평준화돼 57회-60회는 우수 인재가 더욱 많다. 먼저 평준화된 수도권과 영호남 지역의 우수자원이 많이 유학 왔기 때문이다. 정원 역시 2-3개 반이 많았다. 의사고시와 사법·행정고시 합격생이 기마다 100명 안팎이 되는 등 다른 기수보다 우월해 2-3년 후가 더욱 기대된다.

그런데 60회 이전 기수가 은퇴하는 7-8년 후에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아무래도 추첨으로 들어온 61회 이후 평준화 출신이 실력이 처질 수밖에 없어서다. 지금 모교의 형편도 2-3년 전보다 어렵다. 우수 중학생들이 전처럼 둔산이나 노은지구, 서남부 지역의 고교를 선호하는데다, 2011년부터 적용돼오던 자율형 공립고마저 폐지돼 학력신장이 갈수록 어려워졌기 때문. 선배 동문들의 따뜻한 후배 사랑과 적극 후원이 더욱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오덕(41회, 前 대전일보 주필)

미 담

스승이 내준 수업료는 사랑이었다



이정배 선생님



정성순 제자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내 준 수업료를 40년 만에 갚은 제자. 그 돈을 모교 개교 100주년 기금으로 쾌척한 스승.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39회 이정배, 56회 정성순 동문이다.

이정배 선생님(모교 교장 퇴임)은 1974년에 모교로 부임해 1학년 12반 담임을 맡았다. 그 반에 정성순 학생이 있었다.

성순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단 한 번도 제 때 내지 못했다. 수업료 고지서를 받는 게 지옥에 가는 거보다 싫을 정도였다. 그해 가을쯤인가 여느 때처럼 담임 선생님이 수업료 고지서를 나눠줬다. 성순이는 고지서를 집에 가지고 가봤자 부모님이 금방 돈을 주실 것도 아니어서 가방 안에 쑤셔 넣은 채 며칠을 고민을 하다 선생님께 꾸기로 마음 먹었다.

이정배 선생님은 공부는 안하고 건들거리기만 하는 성순이를 교무실로 불러 공부하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기도 했지만 성순이에게 공부는 뒷전이였다. 그런 애한테서 수업료 낼 돈이 없으니 뭐 달라는 말을 들은 담임선생님은 가타부타 말없이 섣뚱 수업료를 내주었다.

성순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마음 한 구석에는 항상 그 수업료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다. 그런데 지난 7월 초 고등학교 다른 은사님의 부음을 들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러다 때를 놓치는 거 아니냐? 살아계실 때 빚을 갚아야지 돌아가시고 후회하면 뭐하냐? 성순이는 동기인 총동창회 사무국장한테 전화를 걸어 이정배 선생님 근황과 전화번호를 물었다. 다행히 건강하시고 동창회관 1층에 있는 39회 동창회 사무실에 자주 놀러 나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40년 만에 100만원 들고 나타난 57세 제자
모교 개교 100주년 기금으로 쾌척한 선생님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점심약속을 잡았다.

이정배 선생님은 가물가물 생각나는 당시 제자의 전화를 받고 어안이 병병했다. 전화를 끊자마자 총동창회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해 동기인 성순이가 식사대접을 한 다는데 무슨일로 그러는지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선생님은 사무국장에게 성순이와 셋이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했다.

선생님은 7월 31일 오후 1시 39회 동창회 사무실 앞에서 성순이를 만났다. 40년이 지났지만 얼굴을 보니 생각이 나는 듯했다. 머리가 희끗한 게 많이 늙었다. 하긴 56회도 몇 년 후면 환갑이니....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처에 있는 부잣집곰탕식당으로 갔다. 자리에 앉으니 성순이가 큰 절을 올렸다. 진작 찾아 뵈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찾아 뵈어서 죄송하다고 했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1학년 때 얘기를 했다. 삼성동 우리 집도 와봤고 내 안사람 기억도 하는 거 보니 내가 성순이한테 꽤 정을 졌었나보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제자가 찾아주니 교직생활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총동창회 사무실로 갔다. 그제 제자가 밥 한 끼 사는 거라 생각했던 선생님께 제자는 그 제서야 40년 전 수업료 얘기를 털어 놓았다. 선생님은 털끝만큼도 기억나지 않았다. 제자는 예쁜 봉투를 건넸다. 선생님은 감개가 무량했다. 이런 제자도 있구나.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 보니 100만원이 들어있었다. 선생님이 그 당시 대신 내 준 수업료는 아마 5천원이 채 안됐을 거다. “한 10만 원쯤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은 순간 마음 한 구석이 찡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내가 쓰면 안 되는 돈이다. 이게 다 모교에서 일어난 일이니 모교 발전에 쓰는 게 옳은 일이다.”

이정배 선생님은 다음날 날이 새기가 바쁘게 총동창회로 달려가 제자가 준 돈 100만원을 모교 개교 100주년 기금으로 쾌척했다.

정리 민장홍(총동창회 사무국장)

<기별소식>

<35회>

- ◆ **행사**
 - 임시 임원회의
 - － 일시 : 2014년 7월 24일
 - － 장소 : 동창회 사무실
 - 가을산책친선모임
 - － 일시 : 2014년 10월 16일 12:00
 - － 장소 : 계룡산 국립공원 수통골
- ◆ **개별모임**
 - 구구회 : 회장 유재환
 - 대우회 : 회장 길기복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남달현 : 010-6411-7008
 - 정주석 : 010-3180-2717
 - 최동수 : 경기 수원 영통구 센트럴파크로 100 6402-1701(이의동, 오드카운티)

- ◆ **애경사**
 - 이창원 : 본인상 5.15
 - 정종구 : 본인상 5.15
 - 천일상 : 본인상 5.22
 - 임춘택 : 본인상 5.30
 - 정기종 : 본인상 6.3
 - 광정옥 : 본인상 6.15
 - 송세현 : 자훈 7.27

<36회>

- ◆ **이사회(동호회장, 전임 회장 및 유공회원)**
 - 일시 : 2014년 11월 12일(수) 12:00
 - 장소 : 대흥동 월산본가(☎ 256-4100)
- ◆ **연말 총회**
 -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12:00
 - 장소 : 대흥동 월산본가
 - 회비 : 20,000원

<38회>

- ◆ **38회 바둑대회**
 - 일시 : 2014년 6월 6일
 - 장소 : 동창회 사무실
 - 참석인원 : 28명
 - A조 : 김봉수, 김수동, 윤석중
 - B조 : 박인우, 박상록, 이웅만
- ◆ **축하**
 - 김수동
 - － 전국오픈탁구대회 남자 70대 단식 2위 6.20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탁구대회 남자 70대 1위 7.13
- ◆ **애사**
 - 이두주 : 모친상 6.2
 - 이병구 : 모친상 7.27
 - 고원영 : 부인상 8.15

<39회>

- ◆ **39회 조용무 회장 주최 오찬 회동**
 - 일시 : 2014년 8월 14일
 - 장소 : 동성삼계탕

〈최영규 부회장 五光 자축연〉
최영규 부회장이 지난 5월 29일 제212차 水GO회에서 五光 대박을 터트려 8명의 회원과 함께 부잣집곰탕에서 자축연을 가짐

<40회>

- ◆ **3학년 7반 반창회 결성모임**
 - 일시 : 2014년 2월 18일
 - 장소 : 서울 명동 동보성
 - 참석 : 이준희 담임선생님, 동기 20명
- ◆ **축하**
 - 박용철 : 대한상공회의소, 동아일보 주최, 2014년 창조경제 CEO 대상 수상 6.26
 - 대전고40회 금강동호인지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발간 8.15
- ◆ **애경사**
 - 김무한 : 자훈 2.15
 - 정무영 : 모친상 5.17
 - 박흥배 : 장모상 5.31
 - 이해남 : 본인상 6.13
 - 장창규 : 자훈 6.14
 - 조이남 : 자훈 6.22
 - 김건식 : 본인상 7.23
 - 오봉환 : 여훈 8.9
 - 정운기 : 장모상 8.21
 - 이호영 : 모친상 8.29

<41회>

- ◆ **재경41회 초창 부부동반 등반대회**
 - 일시 : 2014년 10월 6일
 - 장소 : 서울 청계산
 - 100여명 참가 예정
- ◆ **41회 카페 개설**
 - 네이버 한모41 : cafe.naver.com/hanmo41
- ◆ **애경사**
 - 김한중 : 모친상 2.8
 - 오효진 : 모친상 6.3
 - 송광호 : 자훈 6.14
 - 송규성 : 자훈 7.5
 - 박효근 : 여훈 7.6
 - 이정량 : 본인상 9.3
 - 이종석 : 모친상 9.18

<42회>

- ◆ **행사 및 회원동정**
 - 은사 성선제, 김용구 선생님 문병
 - 스승의 날을 앞둔 5월 12일 회장단(인현 만 회장, 남명진 차기회장) 및 이은웅, 오만진 전회장 등이 동기들의 뜻을 모아 성모병원으로 문병(김용구선생님은 7월12일 작고하심)
 - 동기등산모임 : 산사이(山42)모임(회장 석희선)은 매주 일요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대전 주변 산행하고 있음
 - 동기 추계 연수회 : 9월 17일 전남 영광 사화 축제지, 불교유적지 일원 관광<불갑사 일원-불교도래지-법성포>-동기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
 - 재경동기회 가을연수 : 9월 27일-서래마을 몽마르뜨 공원-누에다리(서울 서초동) 등을 둘러보고 친목을 다짐
 - 윤수남 : 지난 5월 뇌출혈 발병, 6월에 의식 회복 재활치료 중
 - 이상용 : MBC <늘푸른 인생> MC 하차 7.13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방성용 : 서울 강남구 자곡로 230, 지곡포레 A 6-605
 - 김대중 : 경기 용인 기흥구 언동로 71번길 64, 광도와이드빌 105-401
 - 송인범 : 서울 구로구 개봉로 11길 38-5, 한샘빌라 B-02
 - 田영주 : 경기 광주 오폐읍 능평로 21, 우림필유폴드 103-402
 - 송사헌 : 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30, 메트로시티 111-1102
 - 이만희 : 010-8930-0199
 - 박창용 : 010-5397-0711
 - 전병길 : 010-6228-2484
 - 이시영 : 010-5277-4153
 - 광종철 : 010-2468-7482
 - 표창수 : 010-8482-2335
 - 박찬일 : 010-2542-8978
 - 우인봉 : 010-6488-9339
 - 구자윤 : 010-3403-5352
- ◆ **애경사**
 - 유재선 : 모친상 5.4
 - 황규철 : 장인상 5.19
 - 김영돈 : 여훈 6.7
 - 헌봉길 : 여훈 8.15
 - 송신호 : 장모상 8.21

<44회>

- ◆ **축하**
 - 송재준 한모기술 대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 최우수상〉 수상 6.25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강희천 :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사관로 30나길5 201호
 - 김기동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2길 51
 - 김선균 :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 874, 협성엠패이어A 101-116
 - 설진덕 : 충북 청주 서원구 현도면 죽전3길 26
 - 조생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154번길 23, 쌍용A 16-1002
 - 이현준 : 경기도 파주시 청암로 28, 월드메르디앙A 813-704
 - 천재성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227, 삼성래미안 508-1202
 - 이장희 : 010-3203-0732
- ◆ **애경사**
 - 김성걸 : 부인상 5.4

- 김순중 : 모친상 5.6
- 김중희 : 여훈 5.10
- 권용래 : 본인상 5.29
- 임채훈 : 여훈 5.31
- 손동현 : 자훈 6.1
- 김육동 : 여훈 6.6
- 이남복 : 모친상 6.26
- 박우현 : 본인상 8.3
- 박인순 : 부친상 8.9
- 김종건 : 부친상 8.13
- 이갑노 : 자훈 8.24
- 이육재 : 부친상 9.7
- 박영희 : 자훈 9.13
- 이현준 : 여훈 9.14
- 김전식 : 자훈 9.27

<45회>

- ◆ **45산악회 제1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 장소 : 별천지(충남 논산군 가야곡면 명암리)
 - 참석 : 20명
 - 내용 : 회원의 건강기원과 친목도모 회장 정성용, 부회장 송오영 선출
- ◆ **주소 및 연락처 변경**
 - 서동철 : 대전 중구 유등천로 428, 파라곤A 303-902
 - 변무섭 : 대전 서구 청사로 254, 동지A 112-1401
 - 이현세 : 대전 유성구 어은로51번길 48, 3F
 - 문항연 : 010-2129-9855
 - 남상호 : 010-6565-5915
 - 박종환 : 010-6651-1933
- ◆ **애경사**
 - 이대무 : 장인상 5.10
 - 김택균 : 장인상 5.27
 - 안진호 : 부인상 5.31
 - 이문주 : 모친상 6.2
 - 김광열 : 장모상 7.28
 - 황병두 : 장모상 7.28
 - 박성철 : 자훈 9.20
 - 김연호 : 자훈 9.20

<46회>

- ◆ **대전46회 임시총회**
 - 일시 : 2014년 6월 16일 19:00
 - 장소 : 둔산동 스팀팟
 - 참석인원 : 30명
 - 안건 : 46회 동창회 회칙 추진 (관례를 회칙화, 일부 추가 보완)
- ◆ **재경46회 소금강 나들이**
 - 일시 : 2014년 6월 14일 7:40~21:30
 - 장소 : 강릉 - 소금강 - 낙산사 일원
 - 참가인원 : 32명
- ◆ **재경46회 제32회 재경동창회장배 동문 친선 바둑대회 참가**
 - 일시 : 2014년 6월 6일
 - 장소 : 한국기원 2층 대화장
 - 참가인원 : 21명
 - 수상
 - 개인전 - 1급 이상 : 준우승(강원규) 2, 3, 4급 : 준우승(이복규)
 - 5급 이하 : 우승(박재현), 준우승(구광서)
 - 최다인원 참가상 수상
- ◆ **이전 개입**
 - 한민희 : 한민내과 이전 개원 8.30
 - 대전 중구 대흥로 42(대전문화예술센터 3가에서 성모병원 방향)
- ◆ **정년퇴직**
 - 유승현 : 충남대 농과대학 교수 퇴직 2.28

- ◆ **애경사**
 - 김원봉 : 자훈 4.26
 - 이진환 : 모친상 4.30
 - 송재의 : 부친상 5.17
 - 박남순 : 장인상 5.19
 - 강선주 : 모친상 5.19
 - 오병두 : 자훈 5.24
 - 박종영 : 자훈 6.1
 - 유우종 : 부친상 6.9
 - 민병욱 : 장모상 6.21
 - 윤영옥 : 자훈 7.26
 - 박병석 : 모친상 7.30
 - 민의홍 : 모친상 8.22
 - 송재의 : 여훈 8.24
 - 강화섭 : 자훈 8.24
 - 육상구 : 자훈 8.30
 - 육경수 : 자훈 8.30
 - 이창훈 : 자훈 8.30

- 류병헌 : 모친상 9.9
- 손중현 : 자훈 9.14
- 윤영중 : 자훈 9.15

<47회>

- ◆ **재경47회 춘계 आय회**
 - 일시 : 2014년 6월 6일 12:00
 - 장소 : 남한산성 청와정
 - 참석인원 : 50명
- ◆ **대전47회 7월 정기월례회의**
 - 일시 : 2014년 7월 17일 19:00
 - 장소 : 대흥동 만나
 - 참석인원 : 25명
- ◆ **대전47회 9월 정기월례회의**
 - 일시 : 2014년 9월 17일 18:30
 - 장소 : 유성 리베라호텔 지하1층 뷔페 르소메
 - 참석인원 : 47명
- ◆ **정년퇴직**
 - 남상윤, 노승무, 문종욱(충남대)
 - 정하용 (배재대)
 - 남상윤 :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기독교대학교 의학과 설립 및 클리닉개설 (2014.10)

- ◆ **애경사**
 - 이광희 : 장인상 4.24
 - 이완규 : 자훈 5.3
 - 윤병래 : 모친상 5.15
 - 조흥연 : 자훈 5.17
 - 박웅범 : 장모상 5.25
 - 김만성 : 장인상 6.7
 - 홍석준 : 장모상 6.8
 - 김경삼 : 자훈 6.28
 - 노정호 : 여훈 6.29
 - 채수성 : 자훈 7.19
 - 윤상균 : 장인상 7.28
 - 윤창식 : 본인상 8.5
 - 김영남 : 여훈 9.13
 - 박용수 : 자훈 9.21
 - 김용욱 : 자훈 9.27
 - 정헌중 : 자훈 9.28

<48회>

- ◆ **천하대고 48 남도 문화여행**
 - 일시 : 2014년 5월 31일 ~ 6월 2일(2박3일)
 - 장소 : 강진, 완도, 청산도, 해남 대흥사
 - 참가인원 : 162명

<49회>

- ◆ **대전-서울 합동 동기모임**
 - 일시 : 2014년 8월 30일 ~ 31일
 - 장소 : 충북 괴산군 청천면 자연학습원
 - 참가자 : 대전 32명, 서울 21명
- ◆ **회원동정**
 - 김원명 : 정년퇴임 2.25
 - 2014년 총동창회 공로상 수상 5.24
 - 조성만 : 대전도마중 교장 취임 3.3
 - 이현구 : 병원이전 개입 〈서울삼성 내과〉 대전 서구 도안동로3 리더스프라자A(기수원동) C.P. 010-3922-4664, E-mail : doctory22@hotmail.net
- ◆ **애경사**
 - 서우상 : 자훈 3.15
 - 김시태 : 자훈 4.20
 - 전승환 : 장모상 4.23
 - 강 호 : 모친상 5.19
 - 강희철 : 자훈 6.28
 - 조일식 : 자훈 7.12
 - 조규찬 : 본인상 7.22
 - 조운현 : 자훈 9.20

<50회>

- ◆ **개별모임 행사**
 - 98산악회 : 속리산 원정 산행 9.21
 - 재경 50회 오공회 오픈 골프대회 : 여주C.C. 10.6
- ◆ **재경50회 임원개선**
 - 회장 박인규(신임), 총무 정범희(유임)
- ◆ **회원동정**
 - 정성순 : 아프로캐피탈 사장 취임 7.2
- ◆ **애사**
 - 김용성 : 본인상 5.18

<51회>

- ◆ **애경사**
 - 김상용 : 자훈 5.10
 - 노계동 : 여훈 5.10
 - 강영배 : 자훈 5.10
 - 오성룡 : 모친상 5.23

- 이기용 : 장인상 5.25
- 오양진 : 모친상 6.3
- 고선근 : 여훈 6.14
- 박풍규 : 부친상 6.23
- 최민수 : 자훈 6.28
- 남해현 : 여훈 7.5
- 이광우 : 본인상 7.9
- 박정호 : 장인상 7.24
- 이광원 : 부친상 7.30
- 김홍욱 : 본인상 8.3
- 박상동 : 모친상 8.14
- 황인방 : 자훈 8.23
- 홍세진 : 여훈 8.30
- 최병석 : 여훈 8.31
- 김향배 : 부친상 9.7
- 故 민현기 : 자훈 9.13
- 길재성 : 자훈 9.14
- 전경배 : 모친상 9.14
- 임성수 : 장모상 9.15

<53회>

◆ 졸업40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14년 10월 9일(목) 11:00
- 장소 : 모교강당
- 참석대상 : 회원 부부동반

◆ 행사

- 동기 하계야유회 : 청양골 7.20

◆ 수상

- 이봉형 : 대전대 교수,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 우수성과>선정 6.22
- 김응중 : 충남대 교수, 제26회 대전시 문화상(학술부문) 수상 10.18

◆ 인사

- 이홍우 : 대전전문경찰서 청문감사관 이동 7.13
- 김정호 : 백제문화원장 취임 8.1
- 연건희 : 서울 해원여고 교장 영전 9.1
- 최경호 : 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영전 9.1
- 김문구 : 가오중 교장 승진 9.1
- 류지훈 : 법동중 교감 승진 9.1
- 김성련 : 천안 오성고 교장 전보 9.1
- 김인섭 : 당진 서야고 교장 승진 9.1
- 김성태 : 논산 연산중 교장 승진 9.1
- 이진희 : 부여전자고 교장 승진 9.1

◆ 애경사

- 김종일 : 장모상 4.20
- 김형우 : 장인상 5.8
- 이항영 : 자훈 5.18
- 최남식 : 여훈 5.24
- 정신영 : 여훈 5.24
- 김진철 : 여훈 5.31
- 김용만 : 모친상 6.17
- 한일권 : 장인상 6.20
- 최윤목 : 여훈 6.28
- 이종민 : 자훈 6.28
- 송재은 : 여훈 6.29
- 전상배 : 장인상 7.1
- 문홍기 : 여훈 7.5
- 이승희 : 모친상 7.10
- 강신영 : 자훈 7.26
- 이창구 : 모친상 7.28
- 김정빈 : 여훈 8.3
- 이창구 : 부인상 8.25
- 송재록 : 장인상 9.5
- 류계현 : 모친상 9.6
- 이봉형 : 자훈 9.13
- 김향순 : 자훈 9.13
- 고정환 : 여훈 9.20
- 김일환 : 자훈 10.4

<54회>

◆ 재경54회 야유회

- 일시 : 2014년 8월 15일
- 장소 : 남한산성 완도집
- 참석 : 49명

◆ 동기동정

- 노규돈 : 곤드레 썸밥(간장 계장) 오픈 충남 공주 정안면 정안중앙길 124(광정리) ☎ 041-853-7354
- 정덕수 : GS건설 인도 델리 파견 8.26
- 이동규 : 대전대 경영대학 회계학과 전임교수 임용 9.1
- 김선주 : 한성과학고 교장 부임 9.1
- 신진호 : 자택이사, 대전 유성구 학하로 33 학의들A 106-902
- 황인무 : 건양대 석좌교수,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전문위원

◆ 애경사

- 송일섭 : 장인상 4.16
- 이선구 : 장인상 4.17
- 장홍순 : 부친상 5.7
- 박종복 : 부친상 5.27
- 이범우 : 장모상 6.2
- 한치완 : 장인상 6.2
- 김선주 : 모친상 6.4
- 노성우 : 모친상 6.4
- 육상훈 : 자훈 6.8
- 정재익 : 장인상 6.12
- 오재권 : 여훈 6.21
- 이창호 : 모친상 6.24
- 김연권 : 모친상 6.26
- 이인형 : 모친상 7.1
- 황인무 : 자훈 7.4
- 박세은 : 여훈 7.5
- 유진우 : 자훈 7.12
- 윤창구 : 여훈 7.19
- 임근상 : 자훈 7.19
- 조철일 : 여훈 7.26
- 정구도 : 부친상 8.1
- 서지원 : 모친상 8.4
- 임택순 : 본인상 8.11
- 김주환 : 모친상 8.22
- 전승익 : 자훈 8.24
- 안계정 : 형님상 8.28
- 장홍순 : 여훈 8.30
- 송영건 : 자훈 8.31
- 김기현 : 장모상 9.4
- 박종덕 : 자훈 9.20
- 신현교 : 여훈 9.20
- 정덕수 : 자훈 9.20

<55회>

◆ 55산우회 영동 갈기산행

- 일시 : 2014년 9월 14일 8:00~16:00
- 참석 : 17명



<56회>

◆ 회원동정

- 이형근 : 서울호텔종합전문학교 대표이사 취임 5.15
- 이수현 : <낮엔 올갱이 밤엔 과메기>식당 개업 5.17
- 이강욱 : 대한신장학회 회장 취임 6.30
- 손 윤 : 세무사회 역삼지역회장 당선 7.1
- 조은상 : 대전시교육청 행정연수부장 취임 7.1
- 심재승 : 코스콤 전무이사 선임 7.1
- 남정호 : 법무법인 루츠알레 전문위원 7.7
- 송재찬 : 우송대 보건복지대학장 취임 7.9
- 김성오 : KBS 시청자본부장 취임 8.1
- 민중기 :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취임 8.13

◆ 애경사

- 이동수 : 모친상 4.20
- 한용석 : 장인상 4.25
- 이남기 : 모친상 5.9
- 최영환 : 자훈 5.17
- 정형모 : 부친상 5.24
- 이병돈 : 장모상 5.29
- 박일호 : 장모상 6.11
- 차동진 : 모친상 6.18
- 전성일 : 자훈 6.21
- 박상휘 : 여훈 6.21
- 성백일 : 부친상 6.23
- 이인규 : 부친상 6.24
- 박중범 : 부친상 6.25
- 노재욱 : 본인상 6.28
- 김태환 : 모친상 6.30
- 이영일 : 모친상 8.3
- 박찬인 : 자훈 8.23
- 온기선 : 장모상 8.31
- 김선민 : 모친상 9.11
- 정환구 : 모친상 9.13

<58회>

◆ 58회 사은회 개최

- 일시 : 2014년 6월 20일 19:00
- 장소 : 태화장
- 참석 : 은사님 19분, 동기 33명
- 안계훈, 이광우 외 17명 찬조로 이루어진 이날은 안대수의 색소폰 연주 등 사제의 정이 넘치는 흥겹고 성대한 행사로 치러졌다. 특히 재경 민경재 총무, 안계훈, 윤여정 친구의 참석과 바쁜 일정에도 전우홍 세종시 부교육감이 참석하여 은사님들을 더욱 기쁘게 하였다.

◆ 축하, 승진, 개업, 근황

- 김원진 : 어린이 음악학원(베르디 음악교습소) 개원 도안 17-2블럭 호반베르디음악가 2층 208호(010-3407-7059) 4.17
- 변재훈 : 갤러리아 백화점과 세이백화점 지하1층 <세이북스토어>에 이어 홈플러스 법원점에 <세이북스> 세단장 오픈 7.1
- 신희갑 : PGA프로, 실내 연습장(신프로 골프 아카데미)개업, 대전 서구 둔산동 1217 리베라빌 B1 ☎482-7778 (동문가족 특별우대, 010-8442-7773) 8.23
- 이종호 : LG화학 부장이 에이치원 대표로 취임 9.1
- 전인권 : 대성고 교감으로 승진 9.1
- 이서복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부동산 경매 및 중개업 텔루스자산관리(주) 개업 9.5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175, 갤럭시아워 705호 010-2468-2266
- 강남욱 : 두성기술 대표, 골프 스윙 분석기 <스윙프로100>개발, 시판 중. 동문 특별 할인 010-2255-8640
- 양일권 : 미국에서 귀국하여 대전웰니스병원 생활습관병 힐링센터 원장 겸 건강의학 연구소 소장 취임 9.10

◆ 애경사

- 이문주 : 모친상 4.20
- 배형근 : 장모상 5.12
- 박찬우 : 부인상 5.15
- 성진형 : 자훈 5.17
- 신현철(7반) : 부인상 5.23
- 박승호 : 부친상 5.27
- 이수근 : 장인상 6.2
- 한기형 : 장모상 6.9
- 호양환 : 모친상 6.10
- 정진호 : 모친상 6.17
- 박종석 : 모친상 6.18
- 이항석 : 장인상 6.23
- 오대균 : 부친상 6.23
- 류기영 : 모친상 6.26
- 안인균 : 모친상 7.1
- 가장서 : 장모상 7.2
- 류주호 : 부친상 7.7
- 신용섭 : 장모상 7.28
- 임성택 : 여훈 8.9
- 민의기 : 모친상 8.25
- 오상봉 : 자훈 9.20

◆ 2014년도 58회 연회비 납부안내

- 58회 연회비 : 100,000원
- 재경 외 58회 : 하나 622-910075-15105 금7반
- 재경 58회 : 외환 620-227411-096 도정화

◆ 대전고 58장학회 지동 이체 후원 해주세요.

- 농협 453046-51-036607 오충환

◆ 58회 홈페이지 가입안내(현재 226명 가입)

- 네이버 카페 DJH58 홈페이지 가입해 주세요. 가입 시 반 이름 써주셔야 등업 시 쉽게 승인 됩니다.

<59회>

◆ 행사

- 정성진교수와 함께하는 고건축 여행 예산 고건축박물관 5.18
- 대마도 탐방 (2014. 6. 14 ~ 6. 15)



- 건강한 여름나기 행사 논산 양촌 7. 6

◆ 회원동정

- 이상렬 : 대전여중 교감 승진 9.1

◆ 경사

- 정용민 : 여훈 7.27
- 이육헌 : 자훈 9.14

◆ 2014년 59회 연회비 납부안내

- 모든 대전고등학교 59회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 금액 : 대전(80,000원) / 서울(100,000원)
- 계좌
- 대전권 농협 453039-52-157331 (김향석)
- 서울경기권 신한110-258-880304 (김신철)

◆ 59회 네이버 카페 가입안내

- http://cafe.naver.com/daego59
- 대고59회 동기들의 소식을 알리는 카페입니다. 59회 동기들은 모두 가입해 주세요.

<63회>

◆ 졸업30주년 추진위원회 구성

- 일시 : 2014년 10월 25일
- 장소 : 대전 선사인호텔
- 임원
- 회장 이종진(010-7608-2421) 송찬규(010-8208-2140)
- 감사 이장순, 박승해(010-3300-2419)
- 추진위원장 박희운(010-5455-7959)
- 행사기금납부 계좌번호 644-095348-00205(하나은행:최대식)
- 반별 준비위원
- 1반 : 안태정(010-4709-8460) 김성복(010-5263-0302) 금기건(010-4762-0698)
- 2반 : 이기목(010-7266-5978) 인치권, 배성식(010-3599-5420)
- 3반 : 양호직, 조형태(010-5457-1320) 백승철(010-3726-3911)
- 4반 : 이웅상(010-9365-5422) 윤인철(010-7236-7613), 류현창
- 5반 : 허동식(010-5400-0591) 도중필(010-9930-9150), 송찬규
- 6반 : 신영철(010-5403-4660) 강전우(010-6407-0201) 최준섭(010-6226-2020)
- 7반 : 길필중(010-8818-7998) 송인철(010-3438-5623), 홍순웅
- 8반 : 이훈(010-3955-6005) 상정웅(010-7572-8088) 박현철(010-3356-1862)
- 10반 : 이권정(010-8811-3540) 유원배, 정기준(010-4251-4429)
- 11반 : 김태중(010-2820-6202) 황진영(010-2743-7543) 이광우(010-5404-6114)
- 12반 : 문병우(010-6429-8275) 임상규(010-4455-9920) 박승해(010-3300-2419)

<65회>

◆ 애사

- 김창환 : 부친상 6.24
- 김정대 : 부친상 8.8
- 조창희 : 부친상 8.13
- 황선창 : 모친상 9.7
- 김동준 : 장인상 9.9
- 김현섭 : 장인상 9.11

<68회>

◆ 제2회 대능골프로68 기수배 개최

- 일시 : 2014년 6월 29일
- 장소 : 충북 진천 소재 히든밸리 C.C. 박지형 회장을 비롯한 10팀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였다. 이날은 후배 69기 5팀도 함께하여 서로 나이스샷~도 외쳐주고 술 한잔에 담소도 나누며 화기애애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대능골프로68>은 68회의 골프 모임으로 현재 80여명의 인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66회 동창회
재경대전고등학교 제66회 동창회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65회 동창회

♣회 장 김 진 역 (주)강전사 경영지원실장

♣총 무 이 강 진 (주)FM에셋 보험전문가

♣총 무 전 동 배 대전광역시청

♣재경회장 김 기 영 디프소프트(주) 대표이사

♣재경총무 유 제 항 JDC 대표

♣재경총무 최 낙 용 동부대우전자(주) 부장

•류 태 식 고문 / 총동창회 부회장
홍산한방병원 원장

•최 준 희 고문
(주)탑학원 이사장

•권 성 범 마취과 전문의

•김 헌 태 (주)KC종합건설 대표이사

•남궁행석 (주)메디네트 대표이사

•민 석 환

•박 상 용 COWBOY 대표

•박 종 인 (주)호성 대표이사

•박 호 정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 진 배 건보당한의원 원장

•이 규 환 건양대학교 학생복지처장
해외건설플랜트학과 교수

•이 양 훈

•이 재 철 계룡상사 대표

•임 홍 준 임홍준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진 종 식 (주)블루여행 대표이사

•최 산 (주)대국자원 상무

•최 순 용 석암산업(주) 대표이사

•홍 현 완 남대전농협 상무

•황 규 성 공명상사 대표

•김 윤 태 재경부회장
Q솔루션 대표

•이 진 구 고문
버라이즌 상무

•정 윤 선 고문
산업연구원 경제학박사

•강 진 일 고문
LIG손해보험 지점장

•이 영 석 고문

•방 순 태 고문
(주)코스콤 경영기획부 차장

•강 두 식 강두식치과 원장

•김 웅 태 경남기업 건축기술팀장

•박 제 두 SK C&C 금융SI사업팀장

•박 종 탁 네슬레 영업팀장

•임 찬 수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교통팀장

•장 재 철 (주)KT 윤리경영실

•임 원 석 (주)플로지아 대표

•최 원 현 CJ대한통운(주) 우편사업팀

•이 민 재 미래에셋생명
컴플라이언스 팀장

•박 정 용 제이와이글로벌(주) 이사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대전고등학교 제64회 동창회

♣ 회 장 최 보 성
♣ 총 무 오 준 석

♣ 재경회장 권 태 형
♣ 재경총무 서 동 환



주식회사 미목산업

대표이사 강 병 성 (64회)
Mobile 010-4414-0808

충남 금산군 진산면 창동길 63(막현리 13)
Tel : 1588-4939
Fax : 041)753-5044
E-mail : core3705@naver.com

PB · MDF · 오버레이가공 · LPM · UV원판



Saxophone Live Club

음악감독 문 덕 영 (64회)
Mobile 010-7321-3323

예약문의 : 042-484-5338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392번지

대전지방법원 앞



만수당한의원

한의학박사
원 장 조 진 호 (64회)

대전광역시 중구 유천동 324-16번지
(버드내 2단지 동양APT 정문 앞)
Tel : 042-535-0051/0081

www.chomind.co.kr



조현신경정신과
Dr. Cho's Psychiatric Clinic

임박사
전 분 의 조 현 (64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158-2
Tel : 042-255-0009
Fax : 042-255-7280
E-mail : cho@chomind.co.kr

www.vivahw.co.kr



(주)아신금속
Ashin Metal co., Ltd

대표이사 최 규 성 (64회)
Mobile 010-5282-2637

대전광역시 대덕구 회덕로 34번길 27
Tel : 042-622-1456
Fax : 042-622-1457
E-mail : gsc2637@hanmail.net



(자) 삼국통운
(주) 삼국통운

이사 이 창 우 (64회)
Mobile 010-7477-90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30-4
Tel : 042-931-8804
Fax : 042-934-2922
E-mail : cwlee660220@nate.com



BAILO
THE GREAT ITALIAN OUTDOORS

(주)콜핑 신탄진점

대표 최 보 성 (64회)
Mobile 010-5116-3332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30-4
Tel : 042-931-0559
Fax : 042-931-0551
E-mail : uomol@naver.com



삼성안과 의원
www.cjlasik.com

대표원장 홍 성 태 (64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몰 3F
Tel : 043-268-0079
Fax : 043-273-0079
E-mail : oph3300@hanmail.net



고려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류 제 택 (64회)
Mobile 010-5061-3707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973-35 삼화빌딩 305호
Tel : 02-2696-1868
Fax : 02-2696-1867
E-mail : rjt@naver.com



(주)다미컴퍼니
DAMI COMPANY LTD.

대표이사 류 진 (64회)
Mobile 010-5279-2811

서울시 강동구 동남로 891, 1701호
(명일동, 현대멜리안오피스텔)
Tel : 02-771-0678
Fax : 02-771-0679
E-mail : dami@kita.net

아이산
산부인과 병원



전문의 이 성 한 (64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219-5
Tel : 031-916-9400

대표변호사

최 승 진 (64회)

時空
S I G O N G

법무법인 시공 www.sigonglaw.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6층
Tel : 02-561-8829
Fax : 02-561-7166
E-mail : sjchoe@sigonglaw.com



최태욱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 태 욱 (64회)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75, 308호
Tel : 02-904-4507

秀 수치과 의원

원장 한 승 엽 (64회)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 9-88
Tel : 02-395-9137



Medi-Yin Hospital
메디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원 장 권 태 형 (64회)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48-3
대표전화 : 031-943-1191
F a x : 031-943-1526
E-mail : kweonth@hotmail.com



월탑전자
ORLD TOP TECHNOLOGY

대표이사 신 명 구 (64회)
Mobile 010-9060-8501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로 39
Tel : 032-577-8501
Fax : 032-577-8503
E-mail : worldtop@world-top.co
shinwt001@hanmail.net



HYUNDAI

차장 이 명 만 (64회)
Mobile 010-5405-6767

현대자동차 대전동부지점

대전광역시 동구 은어송로 42-3(가오동)
Tel : 042-221-6677
Fax : 042-221-6690
E-mail : manoda@hanmail.net



Smile again
이 욱 재 치과의원

원장 이 욱 재 (6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460-4번지
Tel : 042-621-2875



T-Station
유성궁동점

대표 이 관 중 (64회)
Mobile 010-3205-5189

대전광역시 유성구 궁동 432-8
Tel : 042-822-7999
http://www.t-station.co.kr

바른 서비스, 바른 장비, 바른 타이어



태평양노무법인
정성을 다하는 인사 노무 전문가 그룹

대표인사
박 범 정 (64회)
Mobile 010-2809-0262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24번지 502-2호
정부청사앞 / 둔산사학연금회관뒤(청사프라자)
Tel : 042-482-3080
Fax : 042-482-3089
E-mail : bumjung2020@hanmail.net